• • • • •

괜한생각

이 책을 사랑하는 부모님께 바칩니다.

안녕하십니까. 임민호입니다.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하나둘 온라인에 글을 쌓아오다보니 어느덧 이렇게 책으로 엮을 만큼 모아졌네요. 생각해보면 어려서부터 뭔가 꾸미고 끄적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국민학교 때는 마음맞는 몇몇 친구들과 함께 '봐봐!' 라는 학급 신문을 만들기도 했지요.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 그저 제가 관심있는 농구, 컴퓨터 게임 그리고 외계인에 관한 글을 주로 싣곤 했는데요, 그때 한 친구가 "읽는 사람이 원하는 내용을 다뤄봐" 라는 충고를 해주었습니다. 정말 당연한 이야기인데 적잖은 충격을 받았지요. 하지만 어찌되었든 그건 여지껏 고쳐지지 않는 듯 합니다. 이 책 또한 지극히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얻고, 혹은 잃는 것이 많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희비가 교차하기도 하고, 하루가 일년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눈코 뜰새 없이 달리는 경우도 있겠지요. 삶이 섞입니다. 너와 내가 엮이고 맞닿는 손끝이 꺾입니다. 각자의 계획과 각각의 이상으로 살아가지만, 사람과 사람이 만나 서로에게 주는 영향은 생각보다 상당히 강력합니다. 여느 생명체가 그렇듯, 인간 또한 연료를 섭취해 태워가며 생존하는 유기체일 뿐인데, 이토록 스스로에게 커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서로의 정신과 영혼이 통하는 능력을, 혹은 그런 개념을 공유하며 살아간다는 사실. 이 사실이 저에겐 매력으로 다가왔고, 많은 시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멋진 신세계'와 '기생수'를 몇번이고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AB형이라고 놀려대도 쉽사리 섞이고 싶지 않은 사고방식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같습니다. 저는 제가 쓴 글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생각과 이야기를 공유하길 즐깁니다. 그동안 함께 해준 친구들에게 새삼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네요. 아무튼 제 글을 읽으면 마치 랩을 듣는 것 같다는 말을 종종 들을 때, 개인적으로 왠지 뿌듯해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같은 단어를 반복하지 않으면서 흐름과 운율을 유지해보려 했던 시간과 노력을 알아봐주는 것 같아서 말이죠. 뛰어난 글솜씨는 아니지만 편하게 혹은 거칠게 읽어내려가 주세요. 제 블로그를 통해 의견을 나누실 수도 있답니다. 적어도 임민호라는 사람 머릿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여러분과 함께 했으면 좋겠네요. 그럼.. 노세요오 :)

들어가기 전에..

감사합니다 부모님, 늘상 속만 썩이는 저를 믿고 키워주신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허를 찌르는 통철한 비평 언제나 고맙다 경호야 / 詩作의 시작과 진짜 시가 무엇인지 보여주신 고성만 선생님 존경합니다.. 따님 잘 크고 있죠? 천사같은 박은경 선생님 / Ames 첫 출발을 이끌어주신 Dr. dapper 정호형님, 회장님 호식형님, 밴드부 심장 주현형님과 얼짱몸짱 효준형님 One Love / 성혜야 니 연극을 꼭 봐야할텐데.. 우리 언제 보니 민경아, 춘익형님 잘 계시죠? / 끝까지 가는거다: 연예인 춘기, 9 Second 성배, 촬쓰 철희, Rock 영서, Kobe 범수, gkay 재호, Vhoky 진희, 영화감독 Jakie Lim, 밀키 심쏭, 쑥이, 선생님 휘경 / 인생의 Red Bull 같은 Ames 벗: 멋쟁이 Sean (사장님 되면 몹시 놀러가주마 +ㅅ+/), 예술인 Abe (사랑을 아는 녀석), 미소천사 인준이 (갈수록 멋져진다 ㅎ), 동우형이랑 소희 (스빠르따~~), 민상형님과 인혜 (long live ETC!!) / 이너넷 벗: 센스있는 팥빙수 지예나, 멋져요 예동님, 결혼 축하해 푸무클 누나, 보고싶어요 버미형님, 꼭 놀러갈께요 에스테반님, 제 시도 소개해주세요 변기통형님 / 스터디 가족들: 약사 지민이, 외톨이 아니야 백송아ㅋ, 댄디남 순태, 남좌 옥균형님, 설계신동 동일씨 / 영혼의 master Bruce Lee / 더불어 자기 이름 빠졌다며 다시 한번 읽고 있을 당신까지.. 모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2010.10.12.*

CONTENTS

내 속에..	1
우편함을 한번에 비우지 않는 이유	2
ab.. 뇌세포 쿠테타..	3
서로 다른 것	4
김태희	5
난.. 누구지..	6
종교관	8
시를 쓰고 싶다	9
20070107 생각	10
이걸 이제야 이해했어.. 사람 사귀는거 말이지..	11
잊겠어	12
7년..	13
완전 멋진 모습	14
익숙함을 깨자	16
문득	18
별 보고 왔다....	19
Make Chance out of Change	20
1999-12-29 수요일	21
헛소리 겔겔	22
문득 드는 거리감..	23
살다보면 이런 사람 꼭 있지	24
비난에 익숙한 사람들	25
착각.. 기생충 같은 것..	26
성령의 은혜로 시기하라	27
진실은 어디에..	29
니가 진짜로 원하는게 뭐야?	30
싱아형 착시	31
The Purest of Beauty	32
평안히 가세요	33
살았어도 죽은 것	34
신 vs 과학	35
유기체 2002-09-13	40
죽음	41
인생은 짧다	42
꿈에서 깨면..	43
멋진 여행	44
트랄라	45
노래방	46
de javu	47
가족	48
이런 ㅆ	49
시제목짓기에대한내생각은이러하다	50
진리	51
.	52
휴대전화	53
6뇽	54
사랑해	55
시적인 표현이라구?	56
나의가을	57
흔한..	58
커피 마시는 나	59
아침일찍	60
겨울나들이	61
잊기로	62
이별 후	63
흐르는 물은	64
Nothin ventured, nothin gained	65
The Last Question	66
아악!! 뉴 논스톱!!	74
홍삼톤	75
썬키스트	76
사랑, 희망, 기다림	77
그녀를 잡아요	78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79
결정은 네가 하는 것	81
세상은 말이지..	82
편지	83
kinetic happiness	84
forever & ever	85
편지2	86
..싶다	87
얕은 생각에.. 오늘도..	88

mini-autobiography

1983년, 빈의의 아들로 태어나 몸뚱이 하나만 믿고 20세 후반이 되도록 살아왔다는건 구라고.. 정직과 최선으로 무장하신 아버지와 정성과 사랑을 쏟아주시는 어머니 밑에서 부족한 것은 인격수양과 성적 뿐인 인생을 살아왔다.. 산 좋고 물좋은 강원도 원주에서 유치원과 국민학교를 마쳤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반이 단 하나뿐이었던 원주 삼육국민학교.. 중학교 2학년때 전라남도 광주로 이사오고도 몇년간 동창회를 매년 가질만큼 돈독한 우정을 과시했지.. 세월은 어쩔 수 없는 터라, 결국 친하다고 생각했던 우리들 사이에서도 연락이 계속되는 친구들은 나뉘더라.. 중학교 시절은 꽤 흥미진진했다.. 지금껏 흠뻑 취해있는 웹사이트 제작과 힙합을 처음 접했다.. 이맘때 처음 만들었던 웹사이트가 바로 NumBrain.. Numb Brain 혹은 Number of Brains라는 의미를 가진 포탈 사이트.. 지금의 야후! 나 다음 쯤 되는 컨셉이긴 했지만, 기술적으로 가능할리가 없었지.. 교감선생님 넷츠고 아이디로 인터넷 하다 걸려서 맘 졸이기도 했었다.. 학생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기도 했고, 회의 준비를 핑계로 4교시부터 점심때까지 놀기도 했지.. 보잘것 없는 나에게 온갖 정성을 부어주었던 1년 후배가 기억나는군, 잘 살고 있을까.. 고등학교 시절에 잠시 활동했던 문학 동아리, 교지 편집부, 정보통신반.. 그중에서도 문학 동아리에서 활동하며 '시집'이란 시집을 겉핥기로 접한 덕택에 지금껏 시 아닌 시를 멋대로 써대고 있다.. 학교 서버에 자리를 얻어 충분한 용량을 써가며 웹사이트를 만들어보기도 했고.. 수업때 반 전체에게 내 웹사이트가 소개되는 영광도 얻었고.. 난생 처음 대중 앞에서 랩을 토해내기도 했고.. 매일매일 흡수되는 엄청난 양의 정보 덕택에 지금보다 훨씬 다양한 표현을 글로 써내려갔던 듯 하다.. 중학생때부터 이맘때까지 내 나름 그럴싸한 이름의 가상의 회사들을 만들고 좋아했었지; Lmh Design Group., The W.E.G., T.N.T, Pye-Oz Studios 등등.. 짧았던 전남대학 건축학과 시절은 단지 HL0CBD HAM 동아리 활동으로 정리된다.. 불알친구들.. 첫 여자친구.. 음주가무.. 여태 진행형인 미련의 시작.. 뉴논스톱과 양동근.. 힙합.. 기타 등등.. 어쨌든 유학을 결정하기까지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았다.. 새로운 기반,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다.. 단지 그것 뿐.. Iowa State University 라는 이름과 미국 생활은 기숙사에 짐을 풀때까지도 어색했다.. IEOP.. 사람들.. 몹시 후회하는 소극적인 생활.. 그때보다 걱정없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이제는 알지.. 내 길이라 생각, 결정한 Journalism..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체감하며 이미 오래 걸어버린 샛길.. 그렇게 흘러흘러 오늘이 왔고.. 축구공 마냥 이러저리 정신없지만, 학교에서 웹마스터로 일한다는 한가지 소재거리는 이루어 낸듯 하다.. 꿈이라면 한가지, 내 잡지사를 갖는 것.. 대중과 호흡하며 조금 비싸지만 매달 반드시 소장하고 싶은 작품을 쏟아내고 싶다.. 글쓰는 디자이너, 그림 그리는 작가라면 누구나 도전하고 싶은 상상을 초월하는 매채.. 책이란 정형을 깨버리고 싶다.. 한달을 그리 바쁘게 살고난 뒤 재충전.. 여태 살아있을 림미노닷컴은 적잖은 언론을 통해 소개되었을테고.. 이래저래 활발한 활동으로 어느정도 이름을 알렸을 무렵.. 틈틈히 준비했던 음반도 하나 내고, 책도 내고.. 뭐 그런 생활.. 그때까지도 거울 보길 싫어하겠지.. 웃는 모습은 어찌되었든 어색하니까.. 때가되면 다시 느낄 수 있을까.. 밥까지 거르며 농구장에 머물렀던 어린시절, 서점에서 몇시간이고 앉아 웹 관련 책을 외웠던 중딩 시절, 그리고 모든 것을 쏟았지만 여지껏 아프게 하는 너와 가진 기억.. 꿈을 꾸었지만 모자랐지.. 덜 자랐지.. 금가락지 끼워줄 널 찾지 못해, 아니 애써 눈감아 피하는걸까.. 뭘까 이 싸늘한 기운은.. 결말을 알고있는 영화를 보듯.. 불보듯 뻔한 어린애 장난을 보듯.. 굳어버린 심장과 굽어버린 심지.. 미래는 밝다며 외친 눈부신 검정과 무사의 길에 내려진 핵폭탄, 그리고 위기.. 이기적인 판단은 언제나 날 붙들었지만, 음악이 곧 흐르듯 그렇게 지나.. 혹시 알아? 백골과 헛바닥을 보게될지.. 숨막히는 여름에도 이빨을 부딪히며 떨게 될지.. 여하튼 필요한건 내 앞의 당신.. 손 뻗으면 느껴지는 살아있는 당신.. 내 미래는 이미 정해진 삶의 28년을 소비.. 미안해.. 짧은 공백은 너의 몫으로 남길께.. 고마워..

WWW.LIMMINHO.COM

내 속에..

A Simple Touch by Juvenile Injection

어디보자.. 난 말이지.. 별로 할말은 읍지만.. 미노.. 그렇게 날 존재시켜.. 어차피 인간이란 스스로 잘나봤자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외부에서 오는 자극에 반응하고 인지하고.. 따라서 아무리 내가 누구라고 소리쳐 봐야 소용없다는 것이지.. 하지만 스스로를 가꾸고 다가올 기회에 대비하는건 참 좋은 마음가짐이야.. 그것은 타인에 의한 인정을 바라는 무책임한 태도보단 낫지.. 내 맘은 강하고 딱딱했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연기처럼 뿌옇기만 해.. 적어도 한땐 내가 제일 유별나다고 생각했으니까.. 세상에 흡수되.. 점점 거대하던 기대.. 자아는 작아져.. 불안해.. 강한 척 하지만 약한 것.. 하지만 난 이젠 극과 극 아무것도 아닌 중간.. 마릴린 맨슨의 검정과 저스틴 팀버레이크의 형광을 모두 받는.. 국문과 영문은 한낱 흘림 차이.. 어렵다는건 핑계.. 결국 힘이들면 기피 겁쟁이처럼 몸을 사려 피신.. 또 시작이군.. 난 밝아.. 걱정마.. 헛소리? 세상은 그런 헛소리와 헛생각을 원해.. 내가 만든 수많은 데이터들. 그리고 위선. 착하게 살려는 나는 어느샌가 인간 세상 왕따되어 울먹이고 눈은 껌뻑이고.. 무언가 반드시 바뀌어야 하는 여백.. 한 순간 잡생각은 시냅스를 감는.. 눈부신 검정의 감격..

우편함을 한번에 비우지 않는 이유

나에게는 이런 취미가 있다.
우편함을 자주 확인하지만, 한번에 비우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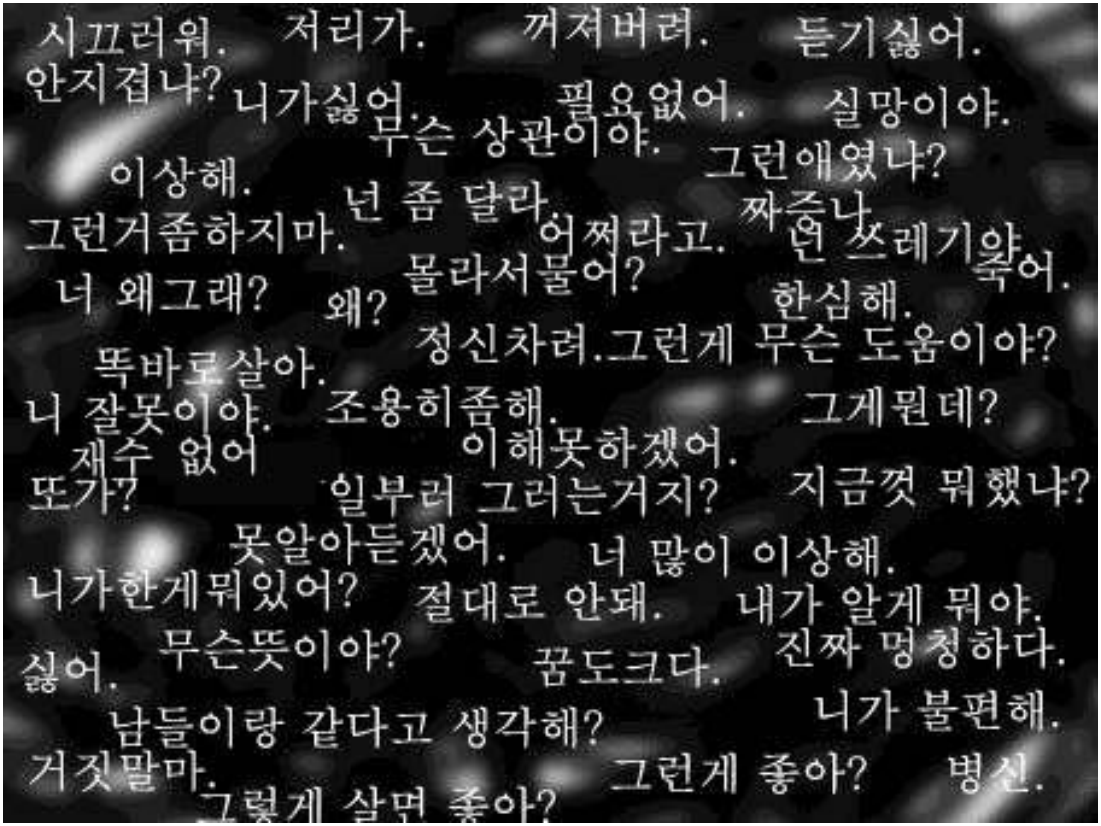
쌓여있는 봉투들 속엔 언제나 그렇듯 광고가 반이다.
나머지는 여기저기서 내 주머니를 노리는 고지서.. 그리고 또 광고..
어떤 날엔 '사람'에게서 온 편지가 날 반길때도 있다.
가뭄에도 콩은 자란다. 좋잖아 그 기분.. 하지만,

대부분 메마른 내 삶.
있던 관심인척 슬 쩍 건네는 세상의 말없는 손짓
덥썩 감히 한번에 잡아 챙기고 싶진 않아..

어차피 버려질 광고일지라도, 잠시만 남겨두기로..
내일 혹은 모레 다시 우편함을 열었을때,
새로 온 편지는 없더라도 날 반길 무언가..
빈공간. 공허가 난 두려우니까..

그게, 너무 싫으니까

ab.. 뇌세포 쿠테타..



키득 웃다가 펑펑 울다가 다시 키득
버썩 찢고 덤볐다가 휘둥그래 숨지
싸이코, 머리에 병을 담은 나는 ab,

서로 다른 것

그래.. 다른 것을 재미나게 받아들이는 세상
'다르다'와 '틀리다' 정도는 구별하는 세상
너는 너.. 나는 나.. 그대로..

그래봤자
결국 문제는 나.. 뭐든 받아들이기 나름이니까

그래도.. 저마다 같은 구석.. 기대치..
이런 것 덕에 사는거지.. 그치?

김태희

상큼한 아침. 정신은 말끔.
난, 커피대신 녹차~

이렇게라도 눈 씻고나면..
마음도 머리도 나아질까..
ㅋㅋ 쓸데없는 핑계거리..
이쁜걸 어쩌라고.. 응?응?
너도내겐마찬가지..알지?

난.. 누구지..

JS님의 마음의 소리3화 '굴욕' 중에서..

요즘들어 이런 뜬금없는 생각을 한다.. 난 누구지?

열심히 교회를 나가고는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나는 영생을 믿지 않는다. 아니, 믿기 싫은 것이지.. 그냥 죽으면 끝이면 좋겠어.. 기껏 죽었는데 다시 살아야 한다고? 지금 당장 생각해도 가슴을 찢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후회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시간을 되돌려 예전으로 돌아가 바로잡고 싶은 기억들.. 가끔 잠이 들기 직전이나, 생각없이 버스안에 몸을 싣고 있을때나, 혼자 술먹고 멍하니 쓰러져 있을때 주마등처럼 스치는 치가 떨리도록 싫은 내 어리석은 과거와 현재.. 이런걸 떠안고 죽은 놈을 살려내 다시 살라며 떠미는게 축복이 가득한 천국의 문인가?

아무튼..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결국 주위의 반응을 감지해 판단하는 것.. 예를들면, 늑대와 어려서부터 살았던 소녀는 자기가 늑대인 줄 알았고 인간사회에 끝내 적응하지 못했지.. 요 몇달간 제대로된 인간적 왕래가 없었던 터라, 나를 소홀히 잊고 살았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다 잊어버렸어.. 혼자에 익숙해졌어.. 너와 내가 교감하는데 무슨 공식이 있겠냐 싶겠지마는, 눈빛만으로 알수있는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면 어느정도 미리 정의된 방법론은 필요한 것.. 난 그게 사라진것 같아..

이해하려 관용의 관용과 수십개의 참을인을 그려도 도저히 불가능한 인간말종들은 희희덕거리며 잘들 생존해가고..

정작 보고싶은 너를 볼 수 없는 나는 이 거리를 곱씹으며 잊고 각자의 삶에 지쳐 발뒷꿈치를 끌며 유난히 맑아 눈부신 오늘을 저주하는 것이지.. 거시기.. 자신없이 시작하는 가식이 절반을 채우는 이야기.. 얼굴만 봐도 목소리만으로도 오른발을 땅에 박고 비튼 허리 손목에 힘을 줘 네놈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오게 턱주가리를 부셔버리고 싶은데.. 이건 내가 아냐.. 겁쟁이.. 떨려.. 눈에 띄지 않게 눌러 쓴 모자 속에 조용히 숨겨 숨어.. 아닌듯 감정을 바꿔.. 이미 눈치챈 어두운 표정을 못본척 애써 지워.. ㅎㅎ 초라한거지..

10년전 기가막히게 좋다고 무한루프로 듣던 김건모의 노래도.. 지금은 드렁큰타이거에 밀려 이따금 들릴 뿐이고.. 너뿐이야 고백'했었'더라도 좋아'했던' 사이로 남아야 한다며 자책.. 잊는게 상책.. 양심의 가책 때문인지 굳게 쥐고 머리 한구석 망부석처럼 앉아 발전을 향한 채찍질을 부동으로 회답.. 그냥 흘려보내지..

너에게 있어 나의 존재는 뭐야? 관계 속에서 자각하고 지각해야 하는 것인데.. 그 관계란게 희미해.. 흐릿해.. 소수 남아있는 나를 일깨우는 사람들에게 고맙지만.. 아직도 알 수 없는 건.. if there's any potential in me.. 이미 오래전 거쳐야했던 어리석은 고민을 이제야 심각한척 하고..

길을 잃었다.. 바보같이..

종교관

오늘 생각 깊은 친구 한명과 종교에 관하여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다.
영생을 믿지 않는다는 나의 글을 읽고 종교관을 글로 써달라는 부탁에 아래와 같은 짧은 답을 써주었다.

> cube (영화 cube의 그것) 안에 갇혀 오직 하나뿐인 구원의 출구를 위해
> 온갖 암호와 퍼즐을 옥신각신 헤쳐가며
> 나름의 정의와 각자의 방식으로 몸서리 친다.

그러자 다음과 같은 신랄한 답문이 왔다.

> 구원의 출구를 찾기위해... 아니 잠깐만,
> 구원을 찾는 그 '과정'은 결국엔 '삶'을 얘기하는거 아닐까.
>
> 삶에 있어서 종교의 의미는?
>
> 구원의 출구로의 그 길의 지침점이 바로 종교? 그게 종교의 역할?
> 구원 받아짐을 목표로 하는 종교가 또 있을까마는 기독교에 있어서 '구원 받음'은 목적에 가깝다.
> 그렇지만 내 생각에는 그건 영생을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
> 신을 두고 영접하는 종교의 의미말고, 종교의 필요성은? 아.. 나도 내가 뭔말을 하는건지..
> 암튼, 오빠의 글은 동문서답인 듯..

내가 애초에 좀 성의없는 글을 준 것 같아 답문 겸 해서 다시 정리해보았다.

>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독교가 종교를 이야기 하는데 있어 내 첫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사실이다. 허나 모든 종교에는 단연 신도들이 추앙할만한 감칠맛 나는 목표가 있을테고, 그것이 구원이든 해탈이든 영생이든 어휘 자체를 따지는 건 무의미할게다.
>
> 인간의 삶에 있어 종교는 적잖은 의미를 갖는다. 태고적 부터 인간은 무한한 자연을 숭배했고, 조직통솔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신-사도-군중, 혹은 우리/그들 등의 개념을 구상하여 오늘날까지 비교적 성공적인 실적을 올리고 있다.
>
> 어찌되었든 바쁜 현대인들에겐 이런 자질구레한 사실보다는, 의지하고 심신을 기댈 무언가 필요할 뿐. 목표가 동일한 공동체는 사공이 아무리 많더라도 어디론가 힘차게 노를 젓는다. 함께 노를 젓는다는 사실 자체, 그리고 간간히 밀려오는 개인적인 감동과 형언 불가능한 경험들에 만족하며, 손에 든 노를 더욱 힘주어 쥐는 것.
>
> 내겐 이 모든 신실한 사회적 현상들이 주변에 펼쳐진 cube 조합들일 뿐이다.
>
> cube 내부는 생각보다 넓고 정교하며 복잡하다. 너른 세상에 숨쉬는 듯 하지만, 결국 육면체 안이다. 치이고 비비고 울고불며 외치다 행복에 취해도, 결국 육면체 안이다. 각자의 공식과 고민으로 굳은 심지를 불태워도 결국 육면체 안이고, 그것은 각각의 육면체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노력이다.
>
> 구름 위를 걷든 깨닳음을 얻든, 육면체는 내겐 비좁다.

다행히도 위 글로 내 종교관을 이해했다는 대답을 얻었다. 여러분의 종교관은 어떠신지?

시를 쓰고 싶다

오늘은 왠지 시를 쓰고 싶다
하지만 이 글에 시는 없다
시가 없다, 시가, cigar
담배인가

예전 농담 반 써내렸던 글
그립다

엠인엠의 디티의 다듀의 flow와 rhyme
나를 포함한 수많은 wannabe 가슴속에 파인
가능성을 메고 인도 upper level로

꿈이란..

눈을 감진 않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외쳐대진 않지만
손을 모은 대답없는 개인적인 고백

한 사람만을 구슬프게 사랑..

없지 작전 같은건 이미
검어진 내 살 거머쥔 내 삶
네게 모두 꺼내놓은 최선이 나의 전술

20070107 생각

모순에 모순, 난 지어내기 선수
거짓을 숨쉬듯 토해도 널 따라잡긴 힘들어

과거를 돌아봐 한자리 앉아 웃지 마치 돌하르방
꿈이란 술을 들이켜 취해 내딛기보단 오히려 go back(고백)
비틀거리는 시선 세상이 뒤집혀 바닥이 나를 쳐

멈칫멈칫 멀찍히 앉아있는 너를 향해 전진후진 타버린 엔진
오토매틱을 원해 벌써 몇번째 영원히 익숙치 않을 사랑이란 뭔지
두껍게 늘러붙은 먼지 내 눈을 울리고 코와 입을 막고 죽으라며 숨통을 후벼놨지

향수를 뿌린다 내 악취를 감추려
머리를 빗고 새옷을 입고
나선다 얼굴은 멋대로 구겨진채

이걸 이제야 이해했어.. 사람 사귀는거 말이지..

왜 진작 몰랐을까..
남들 사는거 보면서 못내 쯧쯧거리며 불만을 터뜨렸지..
정작 이해를 시도하지 않았던게 잘못이겠지..

사람 사귀는거.. 남자와 여자가 애인으로 지내는거..
어차피 젊을때 잠시 놀다 이별하는 식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어떻게 저러지? 했었지..

남녀가 사귀는건.. soul과 soul이 통하는것.. 인간으로써 좋아야지..
Out of sight, out of mind.. 말도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지..

만약 실제로 만질 수 없다고 그 사람에게서 마음이 멀어진다는건..
단순히 옆에 두고 염장질에 스킨쉽 좀 곁들여서 편하고 재밌는 시간을 보낼 이성친구가 필요할 뿐..
꼭 그 사람이 아니라도 널린 상대는 많다는 얘기잖아.. 참나..

사람을 동성 아니면 이성로 보는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는거겠지..
생물학적으로는 다 같은 여자들/남자들이라도, 몸속의 영혼은 다 다른거 아닌가?
그 영혼이 맞지 않으면 헤어질 수 있다고 해도.. 그저 몸이 멀어지는 것으로 이별을 생각하는건..
관계의 시작부터 상대를.. 서로를 쉽게 생각했다고 볼 수 밖에..

....라고 생각을 했었다는거고, 어찌되었든.. 이젠 알았어..

자신의 욕심만 차릴 수는 없는 것.. 어차피 처음부터 영혼이 접하지도 않았고.. ..
느낌이 좋으면.. 내 '타입'이면 만나서 웃고 떠들고 시간을 보내다 그렇게 헤어지고 다음 이성을 찾는거지..

이제 나도 너희를 따라가려해.. 모순덩어리 변명처럼 들릴지라도..
가벼운 관계를 원해.. 얕은 거리를 원해.. 두번 생각하지 않고 겉으로만 판단하길 원해..
운명이고 뭐고 그래봤자 세상은 다 이해관계..

경험이란 본질을 좀먹는 멋드러진 물감.. ..이라고 해도..
이미 복잡하게 채색된 흰색 도화지는.. 너무 깊게 칠해버려 금방 뚫릴듯이 처진..
하지만 절대 변하지 못하지.. 액자는 바뀌어도 깊게 스며든 갖가지 색깔과 도형들은 변하지 않지..

액자를 열고 도화지를 뒤집어.. 마치 아무것도 없던 것 처럼..
구태의연한 구실로 붓을 들어 칠하려다.. 이미 앞뒤로 스며든..
억지스런 표현.. 상황이 여기까지 오도록 방치한 나.. 네겐 사치..

이딴 글로 다짐해.. 착한척 과거를 관람해.. 그래봤자 비참한..
온 몸이 둘로 쪼개지는 아픔이겠지.. 서로가 서로를 치유하는거지.. 하하.. 웃기지 난..

lazy ass.. 가치없어.. 그럼.. 가차없어.. 그래도 고마워..
아니.. 미안해.. 그동안 말없이 혼자 얼마나 고민했을까.. 얼마나 걱정했을까..
성급히 일반화 하지 않으려 얼마나 참고 또 참았을까.. 그리고 얼마나 실망했을까..

잊겠어

연결 고리를 끊겠어
소름 끼치도록 현실적인 꿈이었다 생각해

깊이가 없어 나란 녀석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을 향하지
참 밉겠어 너에게 있어 난 뭐였어? 괜찮겠어?
잊어 그래 날 욕해 짖어 대체 이게 몇개?
퍼부어 저주를 평생 더 뭘 원해? 속세? fuck that

머리가 지끈거려 눈알엔 실핏줄이 터져

먼저 가세요, 도끼로 찍어줄께요
안아주세요, 칼날을 등에 꽂아줄께요

무서워? oh, please 그럴만한 위인이 아닌건 알잖아
같잖아 하는거 맞잖아 입만 살아 그럴싸하게 뻥치는거 다 봤잖아

넌 내게 뭘 어떻게 어떡해 선택해 물으면서 결국엔 니가 더 섬뜩해
설득해 우기지마 옳고 그름 높고 낮음 상대적 넌 중심이 아니야

삶이란게 그래 절대 공평하지 못해
그래도 살만할땐 내 머리맡에 네 목소리가 들려올때 그때

착각하지마 닥쳐 다쳐 다가오지마
서로에 맞춰 서로를 망쳐 담아두지마

무언의 경전 무식을 가리는 설정
생긴건 멀쩡한데 대체 쟤는 왜 저래?
신경 좀 써 lift up yourself

.
.

좀약먹은 좀비마냥 쫌생이처럼 조급해서
달리는 토끼 닭싸움하듯 닥달하면 뭐 달라질까
where we at? 익숙해진 어법에 어색한 문법
널리 널 알던만큼 멀리 가 빨리 더 훨씬

이젠 썩 내키지않아 잊겠어

.
.

you, in the mirror

7년..

Tiger JK

7년.. 거침없이 나타나 당당하게 정상의 자리에..
나도 이렇게.. 세상을 꿰찰 수 있을까..
하고 싶은걸 하면서.. 주먹을 위로 머릿속까지 너의 맘까지..
but nothing's in me.. 슬며시.. 다시.. 검정은 눈부시고 혈액은 끓어 in the air..
사람 맘이란게.. 어쩌겠어.. 그냥 웃는거..
첫키스의 달콤함.. 첫사랑의 쓰린 맘.. 그만.. 안아줘.. 잡은 손.. 그 손..
변해가지 점점.. 도움 못된 못되먹은.. 한스럽지.. 내가..
괜찮아.. 말만.. 변하지 않잖아.. 순간 안심뿐.. 너도 알잖아..
이리도 무거울 것을.. 쉽게 버려.. 패인 골이 너무 깊어..
진실은.. 나를 이렇게 만든.. 시간을.. 서툰 행동들.. 후회를.. 추억은..
모르겠다.. 재시작.. 아니야.. lonely.. 잊지.. easily..

어쨌든....

완전 멋진 모습

가장 진실한 모습이 완전 멋진 모습이다.

흠.. 그렇다면 진실한 모습은 어떤 것인가. 꾸밈없는 것. 옳지..
당당함이다. 진실함은 당당함에서 나온다. 역으로 당당함은 진실에서 나온다고도 할 수 있다.
당당함은 무엇인가. 무언가 아는 것이다. 뚜렷한 지식으로 우길 수 있는 것이다.

'~같다' 라는 표현을 줄이는 것이 첫째로 행해야 할 일이다.
물론 묘사하기 위해 쓰이는 때는 예외지만, 예를들어 "어디서 들은것 같은데.." 라는 말..
기억이 가물가물할땐 깨끗하게 모른다고 시인해야 한다. 그게 당당한 모습이다.
자신이 흐릿하게 나마 알고있다고 우기는건 치졸하고 비겁한 모습이다.
비겁해지지 않으려면 무엇이든 확실히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기억력이 좋지 않다면 반복학습을 통해 익혀야 한다. 완전히 자기 것으로 흡수해야 한다.

두번째 행할 일은 열심이다.
사전에선 '어떤 일에 정신을 집중하는 일'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몰두한다는 얘기다.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열심일게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인가.
능력 밖의 경지로 발을 내딛는 것이랄까.. 열심으로 한단계 나아가는 것이다.
한계치를 넓히는 행위.. 그것은 칭찬받을만 하다. 또한 당당할 수 있는 바탕이다.

진실함은 당당함에서 나온다고 했다. 또한 역(逆)도 성립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거짓을 놓고 떵떵대는 사람은 당당한게 아니다. 그건 뻔뻔함이다.
만들어진 진실은 오래가지 못한다. 메멘토의 사실은 진실이 아닌 것과 같다.
역사는 곧 진실이 아닌 이야기, 해석인 것과 같다.
영원할 것 같던 비밀도 언젠간 탄로난다. (빨간 탁구공 이야기는 예외지만..)

당당함과 거만함을 혼돈해선 안된다. 비슷해 보이지만 엄연히 다르다.
거만하게 자랑을 늘어놓는 건 현재의 모습에 안위하는 자아를 반영한다.
이와는 반대로 당당한 사람은 자신을 굽힐 줄 아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뽐낼꺼리를 물색하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것이 진정 당당한 모습이리라.

당당한 사람은 진실하기에 변명을 찾지 않는다.
움직임을 행하기 직전 생각을 그대로 가져가야 한다.
같은 시각 같은 행동이라도 수십번 되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면..
기억 속에서 수없이 반복될 수 있다는 뜻이다.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기억을 편집해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변명은.. 거짓말은.. 그렇게 만들어진다.

당당한 사람은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다. 누구나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곱씹으며 고민하는 사람과, 잘못을 시인하고 그다음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후자가 당당한 사람이다. 시간은 거꾸로 갈 수 없기에..
어차피 되돌리지 못하면 더 나은 것으로 덮어씌우면 될 것 아닌가.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무엇에서나 배움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당당하다.
사방이 배움의 원천이므로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다. 공손하지만 냉철히 관찰한다.
질투나 시기따윈 있을 수 없다. 누구에게나 배울점은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가장 진실한 모습이 완전 멋진 모습이다. 또한 그것은 꾸밈없는 당당함이다.
언제나 내가 쓴 구절들을 몸에 익히리라. 그리고 모델삼아 닮아가겠다.

익숙함을 깨자

쓰러진다.. 계획들이.. 하나 둘씩...
교회에선 이 모든 것을 내딛는 기회로 삼으라 한다.
신의 뜻이고 곧 가르침이기에, 낙관적인 마음가짐을 심는다.

대화.. 사회적 관계속에서 필요없다고 느끼는 소소한 부분까지도 반드시 말로 풀어야 한다는 것.
내가 이전 에쎄이에 썼듯, 당사자를 만나 뒤탈없이 사실을 나눠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정신.. 그것의 시작은 정말 단순하게도..
자신이 가장 편하게 쉴 수 있는.. 긴장을 풀고 잠들 수 있는 집에서 시작한다.
혼자만의 공간에 있게되면 누구나 풀어지기 마련인데..
예의를 갖추자.. 가장 쉽고 편할수록 어렵게 다가서자..
가족.. 수십년을 함께 한 사람들.. 또.. 당신을 사랑한다 맹세한 사람도..

오늘 수업을 모두 마치고.. 배도 고프고.. 머리가 좀 무거워서 천천히 집에 걸어왔다.
모자를 눌러쓴 관계로 고개를 쳐들지 않으면 앞이 잘 안보이던 상황.
집 문 앞에서 완전 자연스럽게 열쇠를 넣고 문을 열었다.

익숙해진거지...

이소룡은 무술에 익숙했다. 철학에 익숙했고, 영화에 익숙했다.
하지만 그가 거기서 끝나지 않았던 건..
이 익숙함을 깨고 거듭남을 쟁취했기 때문이다.

오늘 집 문을 열면서 생각했다.
이 집에 처음 이사오던 날.. 아니 집을 청소하고 자리를 잡고..
아직 낯설은 복도를 지나 문에 붙은 번호를 확인하고 열쇠를 돌렸던...

익숙하지 않은 것은 순수하다.
순수함은 깨끗함이요.. 깨끗함은 가능성을 의미한다.
(익숙하다고 해서 더럽다는 의미는 아니다. 당연하지..)

남자와 여자도 그렇다.
처음 만나 스스로를 알리고, 추억을 쌓고 감정을 전개한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서로에 익숙해지고..
정 때문에 산다는 나약한 변명을 찾게 된다.

익숙함을 깨야 한다.
몸에 배어버린 자신을.. 날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바라보자..

다시.. 다시...

지금 이 외로움이.. 홀로있음이..
힘들어 허덕여도 원인은 내게 있고..
몹시 그립고.. 애타게 바라는.. 원하는걸 당장 얻을 수 없다고..
당장 답답하고 아쉽더라도 정신을 강하게..

陰 and 陽.. 너와 나..
강하게..
Refresh your soul..

문득

난 '문득' 이라는 말이 좋다. 예정되지 않은.. 짐작치 못한..
unexpectedly.. suddenly.. 사실 서든리보다는 앞의 어감이 좋지?
문득 건네는 칭찬.. 문득 만나자는 전화..
아무일 없는 날 꽃다발을 건네는.. 혹은 선물..

이런게 정말 누군가를 생각하는게 아닌가 싶다.
꼭 무슨 기념일만 챙긴다고 잘하는거라면.. 누군들 못하겠어..
일상의 순간순간을 함께하고.. 바쁜 일이 밀어닥쳐도..
머릿속엔 상대방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문득 다가온 긍정적인 우연은 사람을 기쁘게 한다.

유학생인 지금.. 문득 걸려오는 보고싶은 이들의 전화나..
문득 발견한 추억의 옛 게임이나.. 아니면 편지함에 꽂혀진.. '사람'에게서 온 편지..
이런 것들이 내게 짧고 긴 행복을 준다.

지금.. 문득..
아는 사람에게 소식을 전하자.
오래도록 연락이 끊겼어도 좋다.
예전처럼 다가서서.. 안부를 묻고..
자주 만나는 사람이라면..
오늘 문득 선물을 건네주기 바란다.
자그마한 이벤트도 괜찮겠지..

취향을 알고.. 시간을 알고.. 나와의 이야기를 만드는 것...
'문득'.. 기쁨을 주고받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별 보고 왔다....

밤에 별똥별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나가 고개를 들었다
낮게 깔린 까만 하늘 그림자에 총총히 메달린 하얀 방울들
조금 넓은 주차장 입구 난간에 편히 누워 눈을 뜨자
오른쪽과 앞쪽에서 두개 선을 그었다
건물 너머엔 술취한 소리가 시끄러운데 나는
완전한 혼자 아름다운 밤에 모자를 돌려쓰고 별을 세었다
집에 들어가는 길 못내 아쉬운 듯 돌아봤다 몇번이고

어허~ 춥다

Make Chance out of Change

Make Chance out of Change
빌게이츠가 이런말을 했다더군..
Change의 g를 c로 바꾸면 Chance가 된다고..
변화는 기회를 가져온다는 것이지..

워낙 말빨 좋은 분이 한 말이니 금새 만들어낸건지 고심 끝에 나온 명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암튼 괜찮은 말인건 인정... 그렇지?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일테니까 말이야..
사람은 변하는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한결같길 바라는건 무리..

나는.. 어떻게 변할까?

1999-12-29 수요일

기분 좋은 밤

큼큼... 뭐라고 일기를 시작해야할지 모르겠지만....
**** 책보다는 차라리 이게 낫다...
우씨 머리에 쥐났다. 크아~~~~!
음..... 헤헤 찜질하고 왔다.
찜질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겐 단지
눈동자의 움직임만으로도 충분하다.
공기의 흐름... 그 메스꺼림.....
사각형을 애써 가리려는 역겨운 곡선들....
그것들에 반사되는 스펙트럼의 조각에 누군가가 맺히고....
내 아름다운 젖은 뇌는 역시 똑같이 아름다운.. ^^
오늘은 여기까지..... 케케케.....
그럼 화제를 돌려서.... 잠시 생각해 볼까?
오늘 아침.... 그리고 내가 처음 속세(?)를 떠나
이 자리에 앉았을 시간.....
그때와는 상반되는 긴장감....
이 긴장은 그다지 지나치지 않으리라....
멜라토닌만이 친구이고 갖가지 합병증에 시달리는 나로써,
처음 만나는 또다른 세상에서의 환영은 나에게
단편 기억으로의 자기호출을 부르짖게 했다.
또 시커먼 기억 너머로 사라져가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뜨겁고 끈적이는 애정관계에
아쉽기도 하지만, 오늘도 인간이 만들어 놓은
집단이라는 불가분의 관계에 조금더 가까워졌고,
바랬던 인간관계가 이루어졌기에 케케...
웃음만이 흐르고.....
진표의 일기장 닮았다는 자유로운 높은 아찌들의 자유말살..
헤어나오려 발버둥치는 나에게 조차 탈출은 허락되지 않고..
거꾸로 가는 세상에 나도 협력하련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내 일기장을 뚫어져라 보고 있는 당신도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아는지.... 헤헤 ^^
진짜를 보여주러 가야겠다. 진짜....
나만이 말할 수 있는 내 고유.... 침묵....
빨리 방에 들어가라고 난리다.... 우으.....
쓸말은 넘치는데 정리가 안되는군..... 헛소리.... 백골.... 혓바닥..... 오... My favorite....
허나 나를 경멸케하는 바보같은 언청이들.....
짜가..... 싫다..... 젠장.....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섣부른 실수는.....
크으..... 끔찍한 메모리....
내일도 용기없는 나에게 힘을 얹을 그대에게.....
오늘도 똑같이 잘 자라는 말을..... 마음속에....
또 행복해.... 이렇게..... 영원히 간직해.....
-엔드^^-

〉이것이 미노 최초의 홈피에 올랐던 일기.. html로 직접 썼었다..
〉그때 쓴 것보다 더 맘에 드는 일기는 없을 것이다.. back to da history..
〉다시 과거에 젖는다... 흠...

헛소리 겔겔

One Two Three.. 다시 to the Four..
If you want some funk.. now Jump a little more..

후후하하.. 토요일 날씨는 구리고..
온종일 집에.. 책상대신 식탁.. 펜을 굴려 Calculus one..
꼬이지 꼬이지.. 보이지 보이지..
원해 뭘 권해.. 속해.. 계속해..
I wanna be the one you've never expected..

살짝이 비틀어봐..
싫증나? 짜증나.. 이상해.. 이리 count down.. 째깍..
제깍 찾아와.. 뭔가.. 의미심장 정신분열 나열..
과연.. 가열된 스판덱스.. 그만 됐어.. 쳇..

웃다가 늘어나.. 고무줄.. 좋다가 오타가.. 거미줄..

말을해봐.. reset.. 김새.. insane.. 벌써 난 발랑 벗겨진...
꺾여진 자존심은 처음부터 존재 無.. 첫째는..
reset.. reset.. reset.. reset.. reset.. reset.. reset..
오늘도 문제를 안고.. 초조한 다람쥐마냥 웅크려 일초를 산다..

처음부터 잘못된거야.. 그래.. 처음부터..
언젠가 내가 말했었지... 아예 다시 태어나는게 좋을꺼라고..

훗훗.. 부메랑~~ 빠샤!!!~

문득 드는 거리감..

점점..

멀어져 떨어져 사라져
거리감 내 존재가 작아져 숨겨 무너져

진실하지 못했던가 그런건가
내용은 점차 상관없는 오해와
불충분한 이해 고백같이 터뜨린

상관없어 까만 하트라도 마냥
고민하면 나만 골치아파 그만

고립..

너와 나 그리고 누구 단단하게 조립
성립된 등식 끝내 밝혀진 거짓 제외된 파티
같이 한마디 없이 흐르겠지 고집 모든것 결국 착각 지워
미처 몰랐어 미쳐 슬쩍 던진 줄 알았어
추락이 어느 쪽이든 너와 나 거리는 마찬가지

유지..

소리없이 솔직한 안면없이 절친한
이해 그리고 기대 쉽게 내게 앉아 깊게
기간보단 기억 또 알아가는 과정도
유치하게 無知해도 끝내 나 또 만취해도
변한다 모든 것은 떠난다 이 순간은

바쁘게 살아가 너도 나도 그래야
변화를 유지 점점 고립되도 끝내
다시 깨어나 금새 돌아와 ....

그것이 꿈이라고 알아채는데 필요했던
단 한가지 근거는
내가 현실을 살고 있다는 것

현실을 살지 않는다면 꿈의 경계는 무한해진다
렝골리어스, 오직 과거만 먹지는 않을게다

점점, 고립, 유지
꿈, 현실, 거리

살다보면 이런 사람 꼭 있지

나는 평소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거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사실 60억이 넘는 인구가 비비고 사는 이 세상에 별사람 다 있는게 정상 아닐까. 따라서 이런 사고방식 덕분에 나름의 포용력도 생기고, 성질 부리지 않고 넘어가는 여유도 생긴것 같다. 하지만 내 인격수양이 부족한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방향을 잘못 잡은건지, 요즘 자꾸 거슬리는 인간성이 여기저기서 두더지잡기 게임하듯 튕겨나오고 있다. 아주 머리를 질끈 때려 눌러주고 싶은 그런..

"왜? 왜 그래야되는데? 꼭 그렇게 해야하는 이유가 있을까? 왜 남들 다 싫다는걸 지 고집대로 우겨서 남들 짜증나게 하는걸까? 꼭 별것 아닌 사실들을 거짓과 오버로 버무려 끊임없이 짖어대야만 할까? 왜? 왜 그래야되는데?"

이런 사람.. 자꾸 신경이 쓰이고 생각하면 답답하고 짜증만 나서 상대를 안하려고 한다. 어떤 사람은 처음엔 좀 비호감이더라도 두고두고 보면 괜찮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쭉 좋을 수도 있고, 반대로 처음부터 쭉 비호감일 수도 있는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사람은 처음엔 친한듯 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아예 상식의 선을 넘어선 말과 행동에 치를 떨게 되는 타입이다. 초반의 얇팍한 친분 때문에 왠만해선 쉽게 떨쳐버리기도 힘든.. 그래도 멀리하고자 하면 어떻게 내 눈과 귀를 비집고 들어와 언짢게 하는 능력이 있다.

왜 그걸 모를까? 나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사실을.. 자신의 단점을.. 고쳐보라고 말했더니 '싫어'라고 대답하는..

아무것도 없는데서 소문이 날까? 그것도 여러번? 소문이란 사람들 입을 타고 전해지는 구전동화 같은 것.. 도중에 왜곡되고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으므로 곧이곧대로 믿지는 말아야 하겠지만, 이 소문이란 것도 어찌되었든 시작은 그럴만한 사건이 있었겠지.. 여러 사람들이 공감하고 같은 말을 한다는 건.. 아주 치밀하게 계획되지 않은 이상 사실에 근거하는게 당연하다. 따라서 나쁜 소문이라도 이런 상황일 경우, 당사자가 억울하더라도 일단은 어느정도 사실로 인정해도 무방하다는게 내 생각이다 (어느정도 인정해도 괜찮다는 말이지, 사실로 단정짓자는 말은 아니다).

뒷담화와 가십거리가 되기는 누구나 싫을터.. 욕먹을 짓거리를 안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것을.. 굳이 꿋꿋이 우격다짐해가는 그 사람.. 참 대단하다. 한우물도 넓게 파들어가라고 했거늘.. 여러번 매장된다 해도 크게 될 인물이다. 불사조처럼 되살아나 주변인의 피를 빨고 헛소리와 쓸데없는 웃음을 앞세워 존재감을 극대화 한다. 영웅은 외로운 법인가..ㅋㅋ 지랄하네..

시간이 해결해 줄까..

비난에 익숙한 사람들

비난에 익숙해 비판을 계속해 이름을 숨긴채 손끝을 놀려대
왜 또 결국 instant 살육 끝에 얻는 잠깐의 기쁨 승리감에 중독
어찌되었든 이때다 싶지 군중을 따라 궁지로 몰아 일단은 쉽지
그담엔 뭐가 남아 사실은 진실이 아닌 네 머릿속 mystery

착각.. 기생충 같은 것..

착각이 심하면 흔히들 늪에 빠졌다고 말한다. 서서히 정도가 심해져 헤어나올 수 없게되고, 죽음에 이르기 때문이겠지. 하지만 어디에나 시작점과 원인은 있는 법. 이제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한다.

착각의 시작
착각의 시작은, 당연하겠지만 상황을 멋대로 판단하는데 있다. 한두가지 평범한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각색하여 해석한다. 하던 일을 멈추고, 동공이 풀린채, 멋대로 왜곡된 '오해'라는 놈에게 살을 붙여가기 시작한다. 이때, 마음 맞는 다른 한둘과 쿵짝을 맞추는 것이 오해란 놈을 믿을 수 없이 빠른 속도로 살찌울 수 있는 비결이다. 상대방의 본의는 직접 묻지도 못하면서, 진실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3류 소설의 결말을 몰고간다. 왜냐고? 재밌으니까. 남 잘되는 꼴을 못보는게 이 곳 정서니까. 착각과 오해가 커져 결국 진실이 없는 껍데기뿐인 사실이 되는 것. 물에 떨어진 잉크 한방울 마냥 이 시커먼 거짓은 삽시간에 투명한 물 한컵을 물들이고, 마치 처음부터 검은색이었던 것 처럼 희죽거리겠지. 상황이 이쯤되면 억울한 놈이 손해다. 아무리 컵에 투명한 결백을 부어봤자, 이미 좁은 그릇에 남는 건 넘쳐 엉망이 된 현실일 테고, 그 안쓰러운 모습에 위로는 커녕 조소와 손가락질을 앞세워 끝을 보려는게 그 잘난 다수결, 군중심리겠지.

먼저 자신을 돌아보자
애매모호한 소문으로 상황을 단정짓지 말아야 한다. 대부분 남을 헐뜯는 소문의 경우 위에 묘사한 과정을 거쳐 퍼지기 마련. 허나 아주 없는 것을 만들어낼만큼 악의로 가득찬 위인이 있을법하지 않다고 했을때, 소문이 완전한 거짓이라고 볼 수는 없게 된다. 따라서 무언가 섣불리 단정짓기 전에 제3자가 아닌 본인에게 직접 진실을 물어야 하겠지. 그럴 수 없다면, 그 소문이란 것을 옆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면 된다. 혀끝의 칼날이 근질거려 이빨사이로 날카로운 쇳소리를 낸다해도 헛소리를 지껄일지언정 벙어리가 되는게 낫다.

모르면 묻자. 멋대로 유추하지 좀 말고 직접 확인하자. 직접 묻지도 못할 사항이면 아예 생각을 하지 않으면 된다. 쉬운건데.. 내 욕심 챙기다보면 그렇지 못할때가 있지. 쳇..

꾸밈없이 대화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것. 킥킥 숨죽여 웃기보단 호탕하게 웃어제끼는 것. 계산하지 않고 상대를 대하는 것. 인간과 인간이 soul로 대화하는 것. 손을 잡고 눈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결론은
남들이 만끽하고있는 착각을 막을 방법도 없고, 소문이 되어 나돌기 전까진 딱히 명분도 없다. 애초에 말이 나올만한 행동을 안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사양하겠어요. 뭘하든 멋대로 해석하시는 분들 때문에.. 하지만 나 하나부터 정직하고 당당하게 살고 있다면,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다수를 이룬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겠지. 그렇겠지..

성령의 은혜로 시기하라

한국 기독교가 많은 욕을 먹고 있다.
나 또한 비슷한 맥락에서 생각을 풀어내려 한다. 다만 이건 '어느 작은 동네 이야기'다.

이 '종교'가 욕을 먹는 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세상을 천국/지옥 혹은 천사/악마 식으로 흑백 양분하며, 영화 'Hot Fuzz'의 주민들 마냥 '우리'라는 울타리를 치고 미운오리새끼는 돌로 쳐 죽이는 '일부' 잘못된 신자들 때문이겠지.. 이들은 오만, 아집 및 허영을 사고의 기틀로 삼았기에 외부의 질타는 들릴 턱이 없고 심지어 거울에 비친 모습조차 받아들이지 못한다.

전도해야 한다고, 세상에 수많은 무지몽매한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 구원의 품으로 데려와야 한다는 거만하고 폐쇄적인 철학.. 게다가 성경에서 조차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세상으로 뻗어나가 사랑을 퍼뜨려야 할 사람들이 당장 코앞에 살고있는 '이웃'을 헐뜯는다. '우리 편'이 아니면 '적'이라는 거지.. 갱스터 마냥 총알을 박고 난도질 하는거지.. 물론 살인은 세치 혀가 담당하는 것이고..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걱정섞인 조언과 쓸데없는 참견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사는게 당연시되는 '사교모임'이 바로 교회.. '신앙'을 방패로 진실을 왜곡하고 '우리 편'이 항상 '피해자'라는 식의 어불성설을 남발한다.

예를들어 A와 B라는 두 사람이 있다고 하자. 이 둘은 매우 비슷한 행동양식을 보이지만, A는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는 점이 다르다. 비슷한 행동양식이라 함은 이성에게 친절하다는 것이다. 전화하고, 부탁을 들어주고, 고민을 상담하며, 함께 영화를 보거나 밥을 먹기도 한다. 이때 교회 안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빨을 까기 시작한다. B는 신앙심도 좋은데 친절하고 사려깊은 훌륭한 사람, 반면에 A는 바람기에 찌든 양아치 쓰레기가 된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탁상공론을 진행하면서 '우리 편' 모두에게 이 다분히 주관적이고 편파적인 추측을 뉴스 보도하듯 알린다.

대부분의 추측은 이렇게 시작한다.
앞서말한 A가 수업에 가기 위해 캠퍼스를 걷던 중, 우연히 평소 알고 지내던 이성친구를 만났다. 마침 같은 방향이기에 그동안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발걸음을 옮긴다. 이때 누군가 이 둘을 보게 된다.

"아니.. 쟤네 같이 걸어가네~"
"뭐야, 둘만 있네? 그렇고 그런 사이였어?"
"그런가봐.. 근데 A는 사귀는 애 있잖아.. 장난아니다.."
"너무하네.. 어쩐지 A 쟤 그래보이더라.. 생긴것도 기분 나뻐, 참 나~"

이런식의 수준낮은 억측과 넘겨짚기로 대략의 줄거리가 짜여지면, 삼삼오오 짝을지어 살을 붙이기 시작.. 조만간 진실과는 아무런 인과 또는 상관관계조차 없는 삼류 시나리오를 완성한다. 그 다음은 앞서 언급했듯 널리 한 인간을 매장하는 것..

탁상공론의 주측이 아닌 교인들은 다음과 같이 상황을 받아들이기도 한다.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지 않는다, 여러 사람이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뭔가 믿을만 하다 등의 지론을 기초로 거짓을 여과없이 흡수한다.

아니땐 굴뚝에 연기날 수 있다. 상대방의 눈을 가린후에 굴뚝에서 연기가 나고 있다고 주장하면 된다. 더불어 굴뚝

아래에서 성냥불을 켰는데 위에선 핵폭발이 나는 상황도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다. 또한 여러 사람이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앞서 말한 과정을 통해 끼리끼리 입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대부분 누군가를 씹는 주체들은 사냥감에게 직접 다가서지 않는다. 심지어 평소 배려의 말은 고사하고 진실을 직접 확인할 필요성 조차 느끼지 않는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위에 들었던 예를 이어서 살펴보자..
A가 이성친구와 걸어가는 것을 목격한 이들과 측근들의 창의력으로 스캔들이 퍼져나왔다. 이때 대부분의 사냥꾼들은 아래와 같이 추측을 사실인양 단정 짓는다.

“A가 누구랑 바람핀데..” 혹은 “A가 누구한테 찝적댄데..”

진실을 아는 것은 소문의 타겟인 A 본인과 그 이성친구 뿐이다. 소문을 전하는 측근이 아니란 말이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옆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면 된다. 그래도 임금님의 귀를 본 이발사 마냥 입이 근질거린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전하면 된다.

“A가 누구랑 바람피는 것 같더래.. 확실한건 모르니까 직접 알아봐야 하겠지..”

울타리 안에서 비겁하게 쑤근덕 대며 습득한 소문의 양을, 자신의 인기 또는 지식의 양과 비례하는 듯 착각하며, 싸구려 일간지 기사 쓰듯 혀를 놀려대는 사람들.. 결국 프랙탈 마냥 그 울타리 안에도 수많은 칸막이가 생기겠지.. 그 울타리의 울타리 안에서도 또 누군가를 사냥하겠지..

신명나게 살육을 일삼은 뒤에, 피가 뚝뚝 떨어지는 이빨과 아직 흥분이 가시지 않은 떨리는 손을 모으고, 회개한다며 찡그리고 울부짖는다. 신에게 가까워졌겠지 하는 뿌듯함, 그분을 믿으니 어찌되었든 약속된 땅을 밟으리라는 아둔함, 전능하신 존재를 등에 업었으니 어떠한 실언과 근거없는 망언도 증언이 되리라는 굳은 ‘믿음’.. 이런 것이 이 작은 동네의 교회, 아니 동네 자체의 기반을 가뭄난 논바닥 마냥 정신없이 난도질하고 있다.

“모든 것이 그분의 뜻.. 모든 일이 그분의 계획.. 우린 그분이 선택한 백성.. 그러므로 ‘이방인’은 꺼져..”

논리 대신 그분을 사고의 필터로 삼는건 아닌지.. 아니, 변명 또는 핑계거리로 삼고 있는건 아닌지 잘 생각해보자. 신앙을 무기로 부정을 정당화하고 있는건 아닌지 잘 생각해보자. 신앙을 방패로 잘못을 덮고 있는건 아닌지 잘 생각해보자.

무지한 머리때문에 43일간 지옥같은 악몽을 체험하며 2명의 목숨과 국가적 망신을 면세점 봉투와 맞바꾼 것도, 그분의 은혜이자 그분이 인도하신 뜻이라 말하겠지. 현실적 해결을 위해 땀흘린 정부를 한입으로 두말하며 뻔뻔하게 씹는 것도, 그분의 거룩한 이름 아래 당당한 거겠지.

모든 종교는 사이비가 아닌 이상 고귀하며 깊고 아름답다. 고결한 가르침을 배우고 인생의 나침반을 고정해야 할 사람들이 가십과 뒷담화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 본인들은 깨닫지 못할지도 모른다. 신앙의 척도는 무엇인가? 스스로 은혜 충만함을 느꼈다고해서 상대적 우월감을 느끼며 남 인생에 코를 박고 침을 튀겨대는 것이 ‘자만’이 아니면 무엇일까? 껍질뿐인 신앙, 주관적인 착각을 신앙이라 여기는 맹목적인 믿음.. 이런것과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을 구분짓는 선은 어디인가?

너무 많은 해석과 너무 많은 이해와 너무 많은 방법론과 너무 많은 군더더기..
그래서 여기저기 널려 이리저리 죄를 씻어가는.. 성령의 은혜로 시기하는 사람들...

진실은 어디에..

소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도입부에 보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반복된다는 니체의 철학을 소개하고 있다. 저자 밀란 쿤데라는 이 철학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듯 하다. 예를들어 히틀러가 되살아 온다던지 하는..

하지만 이건 -당연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해석해볼 수 있다.

사람이 태어나면 이른바 백지상태라고 한다. 물론 백지라고 다 같은 재질은 아니겠지만 말이다. 아무튼 그 종이 위에 무엇을 그리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데..

인간은 사회를 만들었고.. 역으로 사회는 인간을 만들고 있다. 백지상태 인간은 사회를 통해 필요한 지식을 습득한다. 상식, 개념, 예절, 관습, 법, 유행, 농담 등등.. 그리고 나아가 사회의 일부분으로써 자신이 속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게 된다.

모든 일은 분명히 반복된다. 백지 상태의 인간이 자라나며 배운 지식들은 모두 그의 선조가 남긴 것이며, 그의 철학이나 생각 또한 언젠가 누군가 한번쯤 그려보았던 것이리라. 모든 일은 반복되며, 인간은 그 흐름속에 몸을 담고 같은 지식과 같은 욕구를 공유한다. 이 흐름이 곧 사회이자 본능이다. 만약 발로 식사를 하고 손으로 걸어다니게 교육을 받았다면, 아니 주변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행동한다면.. 본인은 싫더라도 대세를 따르게 되어 있지 않은가..

인간이 사회를 만들었지만, 사회는 다시 인간을 만든다. 사회는 다시 인간관계, 주변과의 교감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 교감이 끊겼을때.. 인간은 외로움을 느끼고 자폐, 또는 왕따에 이르게 되는것 아닐까.. 나를 제외한 것이 주변이며, 주변과의 교감은 나를 만든다. 내게 진실이 있지만 아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때 그 진실은 아무것도 아닌게 된다. 아니, 거짓이 될 수 있다. 다시말해,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는 진실은.. 진실이 아니다.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으며, AT필드가 쳐진 모든 사물 및 개념들에 反해있다. 그렇기에 벽을 때리면 아프고 지금 읽는 이 글에 반감 또는 공감하는 것이겠지..

갈릴레이가 지구는 둥글다고 했을때 반응이 어땠었는가.. 그 저명한 진리는 거짓이 되고 모두의 상식 속 지구는 평편했다. 일상에서도 마찬가지.. A가 B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B가 그것을 느끼고 인정하지 않는 이상 A는 B를 사랑하는게 아니다. 독불장군은 주변이 그를 독불장군이라 해야 그것이 된다. 주변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는 왕따조차 되지 못한다.

이렇게 볼때, 진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어찌되었든 이해타산이요, 대세의 흐름에 따른 기간이 긴 유행에 불과하다.

그리고 진리는... 진실의 통계다.

니가 진짜로 원하는게 뭐야?

들어봐.. 그래 까놓고 말해봐.. 니가 진짜로 원하는게 뭐야..
아니.. 내 얘기를 먼저 듣자.. 고문같은 소문들..
듣자하니 카사노바 바람둥이 둘도 모자라 거짓빼면 벌거숭이..
순둥이 얼굴했지만 변태 생각은 걸쭉하고..
요즘들어 하루이틀도 아닌 사실 또 말하자면 긴 시간에 치이고 이성에 차이고..
기가 차고 귀에 물이 차고 숨이 턱턱 막혀 침만 꼴깍꼴깍 삼킬때쯤..
이야기는 원점으로.. 시제는 현재로..

그래.. 이제 까놓고 말해봐.. 니가 진짜로 원하는게 뭐야?

싱아형 착시

1.그림사이의 4개의점을 30초간 존내쳐다본다

2.쳐다본뒤 벽쪽을보며 눈을존내깜박여본다

3.갑자기나타난 형아의얼굴을보고 10초간 덜덜덜떤다.

뒷북이래도 하는거다..

The Purest of Beauty

“Unpainted canvas, Soundless song.. the purest of beauty.”

중국의 소설책 “And the Rain Patterns On”에 보면 위와 같은 구절이 나온다. 그림이 없는 캔버스, 소리 없는 노래.. 이것이 가장 순수한 아름다운인가.. 소설 자체에 문제는 없지만 위 구절에 구미가 당겨 생각을 해보기로 했다.

純粹. 순수할 순, 순수할 수
반복해서 순수를 강조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단어 자체로는 순수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다른 것이 조금도 섞임이 없음
이것이 국어사전의 해석이다.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그저 그것 하나로 완전한 형체를 말한다.

여기서 단순한 의문을 던진다.
캔버스의 그림이 다른 것이었던가.. 노래의 소리가 다른 것이었던가..
원래 그들은 하나가 됨에 완벽하지 않던가?

캔버스에 그림이 없으면 비엔날레가 아닌 이상 예술작품이 아니요, 노래에 소리가 없으면 침묵 또는 정적이다. 그것은 노래가 아닌 것이다. 따라서 형체를 이루는 필수요소를 제한다고 순수한 아름다움이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아름다움이 될 그 본질 자체가 불완전 하기 때문이다.

그대는 어찌 생각하시는지?

평안히 가세요

당신은 아름다웠습니다
그곳에선 행복하세요

2005년 2월 22일
마음만은 한결같기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살았어도 죽은 것

이은주는 죽었다. 이소룡도 죽었고, 박정희도, 마릴린먼로도 이 세상에 없다. 그러나 그들을 떠올리고, 그들에 관해 이야기 하고, 생각하면.. 놀랍게도 그들은 되살아난다. 육체적으로 살아나 돌아다니는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대다수의 머릿속에 공통적으로 자리잡는 순간.. 그 순간.. 떠나간 이들의 '존재'가 뚜렷해지는 것이다.

반대로..
나는 살아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러나 아무도 내게 말을 걸지 않는다. 심지어 험담조차 않는다. 완전히 잊혀져 곁에 있어도 동선을 막는 장애물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렇다면, 내 '존재'는 없다. 즉,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

세상엔 그러한 존재들이 많다. 누구나 남에게 인정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은 맘인데.. 떠나간다. 어떤 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버림받고.. 가족도 없고.. 심지어 기관에서조차 받지 않는.. 병에 진물려 죽을 날만 세는.. 그나마 가끔 위로해주던 이들조차 떠난.. 이러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남들이 보기엔 아무런 어려움도, 신경 쓸 것도 없어 보이는데.. 위의 사람들이 겪는 똑같은 고통을 안고 사는 소외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꼭 1:多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1:1의 상황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이 세상에 너와 나.. 오직 둘 뿐이라면.. 날 정의하고 형성해 줄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닌 '너' 뿐.. 따라서 '네'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내 자체를 거꾸로 볼지라도, 그것이 나의 진실이 되고 한번도 일어난 적 없었던 거짓 과거조차 사실이고 역사가 되는 것이다. 하물며.. '네'가 나를 하나의 존재로 '인식'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미 '죽은' 것이며, 네 사고 '밖'에 있는 '공간적 데이터'에 불과한 것이겠지..

여기서 '죽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죽었다는 것은 살아있지 않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어둡다는 것이 사실은 밝지 않은 것으로 정의될 수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다니는 학교에 A라는 학생이 있다고 치자. 그는 공교롭게도 나와 여지껏 한번도 마주친적이 없다. 같은 과에 소속되어 있지도 않고.. 친구의 친구를 통해 만날 길도 없다. 철저히 내 사고의 영역에서 벗어난 이 A라는 존재는.. 안타깝게도 나에겐 죽은, 살아있지 않은, 태어났는지 조차 알 수 없는 전혀 관심 밖의 인물인 것이다. A에게도 나는 같은 개념이겠지..

살았어도 죽은 것..

신 vs 과학

어느 철학 수업 시간.

“오늘은 과학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해보도록 하지.”
그리고는 무신론자인 철학과 교수가 한 학생을 일으켜세웠다.

“자네는 크리스찬이지?”
“네.”
“그러면 자네는 신을 믿나?”
“물론입니다.”
“신은 선한가?”
“당연히 선합니다.”
“신은 막강하지? 신은 아무 것이나 할 수 있겠군?”
“그렇습니다.”
“자네는 선한가 아니면 악한가?”
“성경에 따르면 저는 악합니다.”
“아, 성경!”
교수는 회심의 미소를 지은뒤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말했다.

“내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네. 만약 지금 아픈 사람이 이곳에 있고 자네가 그 사람을 치료할 수 있다고 가정해보세. 자네는 치료해줄 수 있네. 그러면 치료를 할텐가? 적어도 치료하려고 노력은 해보겠나?”
“네. 그럴 것입니다.”
“그럼 자네는 선하군!”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지? 아프고 불구가 된 사람을 기꺼이 도와주려는데 말야. 사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할 걸세. 단지 신은 그러지 않을 뿐이지.”

(침묵)

“신은 도와주지 않아. 그렇지 않은가? 내 동생은 크리스찬이었는데 암으로 죽었네. 예수에게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 그런데 예수가 어떻게 선하다고 할 수 있지? 대답해 볼 수 있겠나?”

(침묵)

나이 든 교수는 다소 동정심이 생겼다.
“대답할 수 없지, 그렇지 않은가?”
그리고는 학생이 긴장을 늦출 수 있도록 책상에 놓인 물컵을 들어 물을 조금 마셨다. 철학에 입문하는 학생을 호되게 다루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다시 시작해보지. 신은 선한가?”
“음.... 네.”
“사탄은 선한가?”
“아닙니다.”
“사탄은 누가 만들었지?
학생은 더듬거리기 시작했다.
“시....신이요.”

“그렇지. 신이 사탄을 만들었어. 그렇지 않은가?”

노교수는 뼈마디가 앙상한 손가락으로 숱이 별로 없는 머리를 쓸어 올리고는 키득키득 웃고 있는 다른 학생들을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이번 학기는 아주 재밌는 학기가 될 것 같군요.”
그리고는 크리스찬 학생을 향했다.
“말해보게.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나?”
“네. 그렇습니다.”
“악은 모든 곳에 존재하지. 그렇지 않나? 그리고 신이 모든 것을 만들었지?”
“네.”
“누가 악을 만들었나?”

(침묵)

“이 세상에 질병이 있는가? 부도덕은? 증오? 추악함? 이 모든 끔찍한 것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학생은 안절부절하며 대답했다.
“네.”
“누가 만들었지?”

(침묵)

교수는 갑자기 학생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누가 만들었지? 대답해봐!”
마치 먹이를 노리는듯 교수는 학생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신이 모든 악을 만들었어. 그렇지 않은가?”
학생은 대답을 하지 못하고 차마 교수의 노련하고 집요한 눈빛을 이겨내지 못했다. 그리고 갑자기 교수는 교실 제일 앞쪽으로 어슬렁 어슬렁 걸어갔고 모든 학생들은 이 상황에 푹 빠져들고 있었다.

“말해보게.”
교수는 계속해서 말했다.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창조했는데 어떻게 신이 선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는 이 세상의 모든 악을 가르키기라도 하는 것처럼 팔을 휘두르며 물었다.
“모든 증오, 잔인함, 고통, 죽음, 추악함 그리고 모든 고통을 신이 만들었어. 그렇지 않은가?”

(침묵)

“어딜 가도 볼 수 있지 않은가?”
그리고는 잠시 멈추고 다시 물었다.
“그렇지?”
마침내는 학생의 얼굴 가까이 다가가 속삭이듯이 물었다.
“신이 선한가?”

(침묵)

“자네는 예수를 믿는가?”
학생의 목소리는 갈라지기 시작했다.
“네. 믿습니다.”
노교수는 고개를 흔들며 유감스러운 듯 말했다.
“과학에서 우리는 오감으로 우리 주변의 세상을 인지할 수 있다고 하네. 자네는 예수를 봤나?”

“아뇨. 못 봤습니다.”
“그러면, 예수가 말하는 것을 들어는 봤나?”
“아뇨.”
“예수를 만져는 봤나? 맛을 보기는 했나? 아니면 냄새를 맡아봤나? 아니면 자네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감각기관으로 느끼기는 하나?”

(침묵)

“대답해보게.”
“아뇨. 유감스럽게도 느끼지 못합니다.”
“유감스럽게도 느끼지 못한다고?”
“네.”
“그렇지만 여전히 신이 존재한다고 믿고?”
“…네…”
“그것이 믿음이란 것이군!”

노교수는 미소를 띄며 학생을 바라보았다.
“과학에서 말하는 실험, 확인, 증명의 방법에 의하면 자네의 신은 존재하지 않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네의 신은 지금 어디에 있지?”
학생은 대답하지 못했다.
“앉게나.”
학생은 침통하게 자리에 앉았다.

그러자 또 다른 크리스찬 학생이 손을 들었다.
“교수님, 제가 이야기 해도 되겠습니까?”
교수는 학생을 돌아보고는 미소를 지었다.
“아, 크리스찬 선봉대중 한 명인가 보군. 그럼, 괜찮지, 말해보게나. 다른 학생들에게 자네의 지혜를 들려주게.”
크리스찬 학생은 교실을 한 번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말했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점은 나름대로 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질문이 있는데요. 이 세상에 온기(heat)가 존재할까요?”
“그럼, 온기는 존재하지.”
교수는 대답했다.
“‘냉기’도 있나요?”
“물론이네. 냉기도 있네.”
“아닙니다. 없습니다.”
교수는 얼굴이 굳어졌고 교실의 분위기는 갑자기 싸늘해졌다.

학생은 계속해서 이야기했다.
“온기를 많이 가질 수는 있습니다. 고온, 초고온도 가능하고 저온도 가능하고 온도가 0 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냉기’ 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0도 아래로 458 도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절대 온도 0 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아래로는 내려갈 수 없습니다. 만약 ‘냉기’라는 것이 있다면 그 아래로 내려갈 수 있어야 겠죠. 그러니까 ‘냉기’라는 것은 단지 ‘온기’가 없다는 것을 나타낼 뿐입니다. ‘냉기’를 잴 수는 없어요. ‘온기’는 에너지이니까 온도를 잴 수 있습니다. ‘냉기’는 ‘온기’의 반대가 아닙니다. 단지 ‘온기’의 부재일 뿐입니다.”

침묵이 흘렀고 교실은 적막해졌다.

“교수님, 어둠이라는 것이 있나요?”
“그건 바보같은 질문이군. 어둠이 없다면 밤이 있을 수가 없지 않은가? 도대체 뭘 말하려는 건가?”

“그러니까 어둠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네...”
“다시 한 번 틀리셨습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의 부재를 표현하는 단어일 뿐입니다. 희미한 밝음, 보통 밝음, 강한 밝음은 있죠. 그리고 계속 적으로 ‘밝음’이 없으면 그것을 ‘어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우리가 ‘어둠’이라는 단어를 정의합니다. 실제로 어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만약 존재한다면 어둠을 더 어둡게 만들수도 있어야 되고 어둠을 병에 담을 수도 있겠죠. 어둠을 병에 담으실 수 있겠습니까, 교수님?”

교수는 학생의 모욕적인 발언에 힘들게 웃었다. 그리고 이번 학기는 흥미진진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네의 요점이 뭔지 말해주지 않겠나?”
“네. 교수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교수님의 철학적 가정에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수님의 결론에도 오류가 있을 수 밖에요.”
교수는 화가 났다.
“오류가 있다고? 아니 어디서 감히!”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학생들은 숨죽여 듣고 있었다.

“설명해보게, 그래 설명해봐.”
교수는 화를 내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며 말했다. 그리고는 다른 학생들을 조용히 시켜 크리스찬 학생이 계속 이야기를 하도록 했다.

“교수님은 이분법(duality)을 가정하고 계십니다.”
학생은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다는 식이지요. 선한 신과 악한 신을 가정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신의 개념을 우리가 크기를 잴 수 있는 어떤 유한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교수님, 과학은 심지어 우리의 생각조차 설명하지 못합니다. 과학에서 우리는 ‘전기’와 ‘자기’를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완전히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죽음을 삶의 반대라고 보는 것은 ‘죽음’ 이라는 것이 그 자체로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망각한 결과입니다. 죽음이란 삶의 반대가 아니라 삶의 부재입니다.“

학생은 옆 자리의 학생이 가지고 있던 신문을 들어 보이며 계속했다.
“이 신문은 우리 나라에서 가장 저질적인 신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도덕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물론이지. 잠깐만, 이봐...”
“다시 틀리셨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부도덕이라는 것은 도덕의 부재일 뿐입니다. 불의라는 것이 있을까요? 아뇨. 불의란 정의의 부재입니다. 악이 있을까요?”

학생은 잠시 멈추었다. 그리고는 다시 물었다.
“악이란 선의 부재가 아닐까요?”
너무 화가 난 교수는 얼굴 색이 변하고 말도 안 나올 지경이었다. 학생은 계속했다.

“이 세상에 악이 있고, 우리 모두가 그걸 알고 있다고 하죠. 신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혹시 악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신이 성취하려는 일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면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 개개인이 자유 의지로 악을 대신해서 선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교수는 치를 떨며 말했다.
“철학자로서, 나는 이 문제가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하는지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네. 현실주의자로서, 나는 신의 존재나 다른 어떤 신학적인 요소들을 현실안의 공식안에 끼워 맞출 수가 없네. 왜냐하면 신은 관찰할 수 있는 대상

이 아니지 않은가."

학생은 대답했다.
"저는 신의 도덕 기준을 이 세상에서 찾아 볼 수 없다는 것 만으로도 신의 존재를 알려주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문은 매주마다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수십억의 돈을 벌지 않습니까! 교수님, 지금 저희들이 원숭이에서 진화했다고 가르치시는 겁니까?"
"자네가 진화론을 말하는 것이라면, 그렇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진화를 눈으로 보신 적이 있나요?"
교수는 학생을 차가운 눈으로 쳐다보았다.

"교수님, 아무도 진화가 진행되는 것을 본적이 없을 뿐더러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고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혹시 교수님 의견을 믿으라고 하시는 것은 아닌지요? 그러면 과학자가 아니라 목회자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일은 철학 논쟁 중 일어난 일이니 내 눈감아 주지. 이제 다 끝냈나?"
교수는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니까 교수님은 선행을 해야 한다는 신의 도덕률을 믿지 않으신다는 건가요?"
"나는 있는 그대로를 믿네. 그것이 과학이지!"

"아! 과학요!"
학생은 갑자기 씩 웃었다.
"교수님, 과학은 인지 가능한 현상을 관찰하는 학문이라고 하셨지요. 그렇다면 과학에도 오류가 있습니다."
"과학에 오류가 있다고?"

교실은 갑자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학생은 교실이 잠잠해질때까지 서서 기다렸다.

"처음 학생에게 하시던 이야기로 돌아가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교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학생은 교실을 둘러보더니 이렇게 물었다.

"교수님의 뇌를 본 적이 있는 사람?"
교실은 웃음 바다가 되었다. 그리고 학생은 당황스러워하는 노교수를 가리키며 다시 말했다.
"여기 있는 사람중에서 교수님의 뇌 소리를 들어본 사람, 아니면 만져봤거나 냄새를 맡아본 사람?"
아무도 대답하지 않자 학생은 유감스럽다는 듯이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아무도 교수님의 뇌를 감각기관을 통해서 느껴보지 못한 것 같군요. 과학의 실험, 확인, 증명 방법에 따르면 교수님은 뇌가 없으십니다."

교실은 소란스러워졌다. 그리고 학생은 자리에 앉았다.

출처 : http://sicoxp.cafe24.com/tt/
원문출처 : http://www.xs4all.nl/~jcdverha/scijokes/

유기체 2002-09-13

생명은 무엇 때문에 항상 유기물질에 의존하는가.
흔히 생명은 혼과 육체로 이루어졌다고 말한다.
만약 이 두가지가 다른 성격의 별개라면..
혼은 유기체에서만 동작하는 것인가..
유기체를 움직이는 운영체제인가..
아니.. 바이러스다..
혼은 육체를 이용해 생명을 빙자하는 바이러스다..
그럼.. 혼은 어디에서 오는가..
각각의 개성을 가진채 유기체로 침투를 반복하는 것인가..
아님 생명의 탄생과 함께 새로 제작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본능은 어디서 오는가.. 생존 본능은..
애써 얻은 하드웨어를 잃지 않으려는 나약한 혼의 마지막 발악인가..
태교에 의한 성격의 변화는..
나는 누구인가...
인간의 존엄이 한낯 뉴런의 분극작용에 의한 것이라면..
그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유기체의 활동이 멎으면 나의 기억은.. 존재는 어디로..
만약 그러한 혼의 존재가 실재한다면....
아니 실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생명체, 중추신경의 화학작용에 근거한 무언의 꼭두각시인가..

누굴 위해 우린 한평생을 연기하는가...

죽음

그냥그냥 살다가 그냥그냥 죽어.. 강을 건너 누군가를 만나.. 그곳에도 사회는 있고.. 할일이 있겠지..
누군가의 판단에 의해 좋은/싫은 곳으로 떠나 또다시.. 그리고 그곳에서 존재하겠지.. 영원히..

어쨌든 끝나지 않는 것.. 죽음은.. 너와 내가 아는 이 세상을 떠나는 것 뿐.. 먼저 떠난이의 뒤를 잇는 것 뿐..
미련을 버리지 못해.. 그 끈을 끊지 못해.. 아쉬움에 정리할 것들을 고려해.. 걱정은 슬픔을 초래해..

“멋지게 살다가 멋지게 가자.. 인생을 짧고 굵게.. 내일은 없다.. 지르자 오늘은 내가 쏜다..”

사라졌을때 기억해주는 사람이 없어야지.. 그래야 진정 내일이 없는 것..
누군가의 머릿속에 갇혀.. 매년 굳어진 얼굴로 그들 앞에 비쳐..
의지와는 상관없이 되살아나.. 기억을 더듬고.. 눈물을 흘리고.. 글쎄..

명예, 명성, 철학과 고집으로 역사의 페이지를 장식했더라도..
아니.. 모든걸 뒤로하고 인간 자체를 애써 들춰 기억하는 사람이 많다고 할지라도..
너 혹은 나란 인간은 추상적인.. 수동적인.. 살아있는 자들의 입방아에 변절자에서 영웅으로..

먼지처럼 가라앉은 내가 돌연 연기처럼 흩어졌을때.. 그냥 그게 끝이면 좋겠어..
달라지는 것은 나를 정리하는 서류들 뿐.. 그게 전부였음 좋겠어..

그냥 그렇게 존재를 잊고.. 암흑도 빛도 필요없어.. 끝

인생은 짧다

인생은 참으로 짧다.

MS는 방영금지된 XBOX 광고에서 인간이 태어나서 죽는데까지 약 40초를 할애했다. 한국인과 미국인 수명이 평균 78세이므로 광고에서 1초를 1.95년, 다시말해 약 712일로 생각한 것이다. 우리는 1초를 712일처럼 살고 있을까?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빠른 속도로 죽어간다. 너무 빨라서 체감할 수 조차 없다. 마치 지구가 비행기의 두배 속도인 시속 1,609km로 자전하는데, 인간은 단지 밤낮이 바뀌고 화장실 변기물을 내리면서 대충 인지할 뿐인 것과 같다. 게다가 이 죽음에 이르는 속도는 나이와 비례해서 가속도가 붙는다. 평균 약 80년을 산다지만 숨을 거두기 직전에 자신의 발자취를 파노라마처럼 되돌아 볼 수 있을 정도로 인간은 찰나의 속도로 죽어간다.

인간의 신체는 약 200조 개의 체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체세포의 평균수명은 약 한달이며, 화학적 또는 물리적 요건과 해당 생장인자가 충족될 경우 24시간에 한번 꼴로 분열한다. 세포는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고 복잡한 신호전달을 통해 사고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필연적으로 엔트로피 또한 발생하며 이것이 삶과 죽음의 생화학적 쳇바퀴를 돌게하는 것이다.

나는 여기서 "엔트로피는 역전될 수 있는가?"와 같은 질문을 하고자 하는게 아니다. 아이작 아시모프에 따르면 그것은 오로지 AC만이, 그것도 10조년쯤은 걸려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인간의 죽음은 세포의 죽음이고 심신 동일론과 나의 바램 또는 생각에 빗대어 말하자면 영혼 또한 세포의 물리적 죽음과 짧은 여행을 함께 한다.

인생은 짧다. 죽음 뒤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살아있는 자들에게 죽은 자들은 추상적이며 그렇기에 죽은 자들은 수동적일 수 밖에 없다. 살아있는 자들의 입방아에 영웅에서 변절자가 된다해도 말이다. 하물며 입방아에 오르내리지 조차 않는 자들은 짧은 인생 후에 존재 자체가 깔끔하게 사라진 것이다. 실낱같은 영생의 희망은 후세에 기록으로 남겨지는 것 뿐이다. 물리적 혹은 영적인 영생은 토테미즘의 기원부터 현재까지 전인류가 공유한 상상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

상상이 계속되고 구체화되면 현실이라고 믿게 된다. 이 믿음은 인간의 사고를 단순화한다. 이해하지 못하거나 두려운 상황에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상상하고 믿으면 된다. 현재까지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으로 하여금 영생, 구원 등 반대 상황을 상상하며 믿게 만들었다. 어떤 이들은 이 두려움과 상상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기도 한다.

상상을 믿든 믿지 않든, 인간의 신체와 사고는 엔트로피의 증가와 함께 생을 마감한다. 이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법칙이 사라지면 드넓은 우주조차 공멸하게 될 것이다.

수험생이거나 군인이거나 혹은 원치않는 상황에 놓였을때 시간은 정말 더디게 간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이라도 1초를 712일처럼 살지 않는다면 80년 인생도 단순한 생화학적 현상으로 순식간에 끝나버릴 것이다. 앞서 나는 "엔트로피는 역전될 수 있는가?"와 같은 질문을 하고자 하는게 아니라고 했다. 나는 여기서 "생화학적 수명이 끝난 후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묻고 있다. 과연 당신이 죽고 난 후 무엇을 남길 것인가? 개인의 영생인가? 후세의 안녕인가?

엔트로피를 역전하지 않고도 영생할 수 있는 답이 있다. "실낱같은 영생의 희망은 후세에 기록으로 남겨지는 것 뿐"이라고 했다. 따라서 후세의 안녕으로 개인은 영생할 수 있다.

이 글을 읽는 순간도 1초에 712일이 지나고 있다면..
자, 이제 무엇을 해야하겠는가?

꿈에서 깨면..

"꿈을 꾸며, 그게 꿈이라고 눈치 채고 있어.. 그래도 눈이 떠지는 그런 경험이 있나?"
- Cowboy Bebop 中 '빈센트'의 대사

난 저 기분을 잘 안다..
정말 꿈을 꿀 때도 '이게 꿈이구나..'를 깨닫고..
일부러 자동차도 훔쳐타고.. 이소룡 처럼 싸워보기도 하고..
하늘을 날고..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리기도 했다..

현실에서도 난 그런 기분을 느끼곤 한다..
이 글을 쓰는 현재도.. 깨어나려 용을 쓰면..
꿈이 끝나고 진짜 현실이 펼쳐지리라는..

그게 지금의 날 만든 원인일까?
연제든 다시 reset할 수 있다는 생각..
인생을 Matrix의 Neo처럼 사는 사고방식..
죽음은 자면서 꾸는 꿈을 조금 길게 꾸는 뿐이라는 생각..
언제부턴가 날 졸졸 따라다니던 것들이다...

삶을 현실적으로 살아야지...
꿈과 야망이란 것을 철없는 공상과 헷갈리고 있으니..

심장이 찢어질듯이 쓰린 안타까움과..
눈 앞이 흐려질만큼 벅찬 행복을.. 동시에 느꼈고.. 주었다..
내가 무얼 하는지.. 무얼 원하는지.. 무얼 찾는지..
날 타일렀고.. 꾸짖었고.. 얼버무림 없이 문을 두드렸지..
과거의 무게는 거리에 반비례했고.. 미래는 꼭 그만큼 멀어지는..

내 존재를 정의함에 육체는 필요조건이 아님을..
역사를 돌아보면 쉽게 알 수 있건만.. 시건방진 기억이란 것은..
끊이지 않는 merchandise 없이는 금새 사라지지..

손을 뻗으면 사라질 것 같은 때가 있다..
혼자일 때와 같은 모습.. 앞.. 응시의 중지와 동시에 없어져..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 현실이란건 붙잡아 두어 주거든..
그래서 가끔 신기해.. 좋은듯해.. 이런게.. 라고 했던가...

그래.. 이제 나는 현실에 살아....
가끔 몽롱한 꿈에 빠질 때도 있지만...
비교적 쉽게 헤어나와.. 머리를 맑게.. 생각해...

좋은거야.. 꿈에서 깨면...
손을 뻗으면 사라질 환상도 없고...
확신과 계획.. 믿음과 진실만이 남지..

꿈에서 깨어나.. 그리고 지금을.. 지금을 살아... 날 찾아..

멋진 여행

세상은 날 버리고 난 세상에 등지고 새로운 시작에 들뜰 때 또다시 발목은 꺾여나가
꿈이란 것 물방울에 굴절되어 공중분해 흩어지고 위로보단 비아냥이 자연스럽지
모든것 사라지고 세상 나 혼자일 때 다시 밝아질 촛불의 심지를 자르겠지 그렇겠지
날 보는 시선에 싸늘한 허공만을 disappear into winter air 그대로 기다려

멋진 여행이다 다시 시작이다 Convertible의 바람을 느끼며 사막을 가로질러
머리칼은 휘날리고 속도계는 한계를 넘었어 이젠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아
Grand Canyon보다 깊은 협곡 있는 힘껏 소리질러 멈추지 않아
바퀴의 공회전 엔진은 멎고 숨소리조차 정적
난
하늘을 날아

트랄라

ㅃㅏㅈㄴㅊ　　바지입고
ㄹ　ㅜㅗㅗ 줄무늬

트랄랄라 머리에 방울이 딸랑 귀까지 걸쳐진 입술에 십자가 까만 눈

ㅌㄹㅏㄹㅏ 신　다
ㅡ　ㄹ　　난

신이난다 나팔을 불고 사방은 덥고 잔치는 이제 막 시작

ㄷㅣ　댕
ㅇ　동　동 종이 울리면

시집이란 시집 맘에 담고 한번 피식 웃고

노래방

아싸 흔들어라 부어라 마셔라 쿵치딱 시간이 아깝다
오천원에 한시간인 전대앞 한 노래방
코러스는 꽝이지만 에코한번 죽이네
예예~ 노래하자 베이베~ 힘을 쓰자
이것이 시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책장 넘어가고 뉴런이 찌릿하고
리모컨에 손가락이 마이크에 땀이차고
귓바퀴 한바퀴 돌아 핏줄선 목소리와 혈압이 올라
반전되는 글씨따라 입술 쉽게 따라가고
아싸 흔들어라 부어라 마셔라 쿵치딱 시간이 아깝다
아쉽지 내 여친 노래 듣기 쉽지 않지
허구헌날 빼던 모습 오늘따라 반전 오~ 놀래며 관전
윤도현 노래가 좋다했지 매일 오락실 이백원씩 투자했지
삑사리 하나 없는 고음 무슨 생각할까 궁금
슬쩍 쳐다본 옆모습 금새 바싹 다가앉은 그녀 얼굴
아싸 흔들어라 부어라 마셔라 쿵치딱 시간이 아깝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주섬주섬 바깥 공기는 춥고
계단 올라 오늘 she's gone 이야기에 웃고 떠들고
그렇게 저녁이 간다 노래방

de javu

과장된 긴장은 귀찮은 듯 뛰던 심장을 곧장
공장 피스톤 마냥 출력을 최대 당장 한계를 넘게
관계, 필수불가결한 상대. 공개적인 시간싸움 완수 다음, 목적
웃는 주름까지 같게

미학적인 비현실적 신음을 펜으로 토해낼때
공학적인 분극작용 또 순환은, 지층같은 내일을 배설 그리고 관철

데칼코마니; 화려한 이분법을 잉태하는 일란성 입맞춤
그림자 같은 결계 위에 내려앉은 번짐은
미동없는 de javu, 탈출
섞는 메아리, the truth

가족

정(情)이란,
어찌 되었든 인간의 마음속에 생겨난 직후부터,
인간을 숙주로 기생해 살아간다.
조금씩 의식을 점령한다.
결국 어리석은 나약한 껍데기는 비틀거리며 휩쓸린다.
시꺼먼 눈동자는 똑같이 시꺼먼 뒤통수를 응시하고,
다 타버려 재만 남은 쓰레기 같은 인간의 윤리를 역설하듯
희멀건 흰자만이 말라가며 곪고 있다.
힘없이 벌린 잘난 입은 무엇을 원했는가.
한낱 잘나가던 추악의 극한에서 부글대던 침..
그 악취에 용해되는 발등의 끝없는 후회속에....
진물이 비집고 나오는 발바닥은 영원한 긴 여행에 풍화한다.
숨이 막힐 듯한 습기와 메스꺼운 냄새....
광적으로 아기를 껴안는 어미...
발딛을 틈도 없이 비좁은 공간에서 씻지도 않은 살을 부대끼며 살아간다.
가족.... 우리는 그것을 가족이라 부른다.....

이런 ㅆ

감동의 물결을 원해?
고민하긴 질색 눈앞에 훤히 그려지길 원해?
한번 읽고 뒷골 땡기게 감동받길 바래?
떨어지는 낙엽에 의미 싣길 바래?
시가 없다 담배만 의미할 것 같애?
뭘 생각해? 뭔가 답답해? 뭣을 씹는것만 같애?

작아져 나는 미안해
다른 생각해 나를
뱉어내 반은 토해내
Get yo fuckin' thoughts out

불결한 내 시
불쾌한 내 시
불안한 내 시
불건전 내 시

부라린 눈알에 그만인 똥침 하하
웃지만 하하 죽어봐 하하 하하하

토해내 그냥 토해내 토해내
시가 뭔데? 시가 뭔데? 시가 뭔데?

이런 ㅆ

어지러워

짧게한토막얘기한다그게제목이란다
하나의명사결국시는한낱말장난뜻풀이

시선고정마케팅전략그게제목이란다
읽히기위해튀어야한다
손을뻗은젊은여자의발림과같이

차라리제목에시를쓰리라
3연8행짜리제목밑에1행짜리시가있다
인쇄문화에회의한다쓸만큼써라당당히

시제목짓기에대한나의생각은이러하다

진리

가장 완벽한 시가 있다면
바로
내가 쓴 것

가장 완벽한 인간이 있다면
바로
나

가장 완벽한 웹사이트가 있다면
바로
내가 만든 것

가장 완벽한 거짓말이 있다면
바로
내가 하는 말... C8

▪

괄시 멸시 무시 등한시 모질이들이 말하는 것 다 bullshit
나 나만의 길을 찾아 머리위의 숫자 지우려 하지만 그래봤자
넘을 수 없는 선에 기다리고 서있는 그대
허구헌날 뼈져리는 후회 과거에서 비롯된 미래
헝클어진 머리맡에 무너지는 주제 지쳤어 이젠

흰눈에 눈을 뜰 수 없었던 흰색 겨울 하늘에
손을 뻗어 그려보는 보고싶던 친구들의 얼굴
금새 얼어버릴 눈물 주먹쥐고 훔쳐 깊게 스쳐
지나가는 잔상에 더 큰 상처 깃들기 전에 먼저
잊어야지 교과서 펼쳐 배웠던 사실 거짓을 잉태
그때 다시 찾을래 가슴의 틈새 비집는 고백
천사의 하나같은 표정보다 명백한 악마의 결백

휴대전화

아무것도 없는 시커먼 골방
살아있는 것은 나 단 하나

열여덟개 버튼 열여덟개 기능
비틀거린 손가락에 목숨건 내 믿음

사람들 머리위에 찍힌 번호들
얼굴없이 잘도 머뭇대게 하지
목소리 천사 아님 문자 300타

모두 목에 열쇠없는 족쇄
자유로운 곳에 갇혀사는 노예

플라스틱 덩어리 속에 꽂힌 배터리
더운 엄마속에 배인 작고 빨간 아기

모든것을 압축 의미없이 희쭉
하고싶던 말도 다섯줄로 만족

그림자보다 더 검은 전자파
성격분화 곧 모두 혼자
모든것에 자연스레 속해버린 지금
원한대도 마음대로 죽을수도 없다

휴대전화 평천하

6뇽

빨강 + 하양 + 살구

까망에 노랑이 튀고 여름에 겨울이 뒤틀리고

심각한 입버릇과 심난한 손버릇

사랑해

넌 소리 지르고 요동 쳤지 크게
그래서 널 내 앞에
벗은 피부조차 사랑해
그래서 널 내 앞에
조금씩 움직여 내게 사랑해
그래서 널 내 앞에
네가 흘린 붉음 사랑을 증명해
그래서 널 내 앞에
감기지 않은 큰 눈은 분산 응시해
그래서 널 내 앞에

너의발작이멈출때쯤다시나는은빛아름다운힘을손에
익숙한놀림얼굴에살짝네가튀어너의마음까지꺼내
하하하하하하하웃지너의영혼스튜내게기생
사랑해사랑해얼굴알아볼수없어도이제우린함께
그래서 널 내 안에

사랑은
식
인

사랑은

시적인 표현이라구?

가끔은이런생각도해봤다빌어먹을놈들이다내주위에주의집중절대빈곤네글자잘려진말들은
못나도왠지잘나보이고시적인표현이라는건읽기힘든것괜히멋드러지게은유하는것왜그런지
세상제일잘난창조적인간시인이란사람가느다란이쑤시개뒤에숨은잣대상대를평가하지대체
몇년살지도않은얇팍한지식으로수천년을이어온문명과역사를씹고잘난척에늘어나는뱃살에
두둑히받아놓은상금에희죽대며돈한움큼타들어가는담배멋적은웃음은장밋빛밝은미래를쳇
허무한결론너무긴서론지나친기대별로좋지않고건강에도흡연은폐암과두통을유발하기마련
또가끔내가왜이런곳에와있는지궁금내이상과는전혀다른꿈과추억떠올릴따름꼬여버린발음
집에혼자컴퓨터수정과삭제가자유로운매체금방써내려간생명없는글들에목숨을걸고또믿고
옷을챙겨입고밖으로다른이들이쳐다보는눈빛이아니꼽고주머니구겨진버스표가자랑스럽고
모순의모순을반복인생의끝에극적인반전을바라는얼굴엔어느새굵직한주름만이한아름방긋
시적인표현이어떻다는고정관념탈피허물벗은진짜배기하루종일넋두리그래도운율만있다면
슬슬지쳐가는글쓰기밥먹여주냐주위말씀이출출한뼛속사무침에텅빈머리두드리는것과같은
아무뜻도없는길쭉한손가락의사백타한영타자쓸모없는이젠내기준을낮출때가왔으니어쩌지
그동안즐거웠어현실의직시필요없던과거를접고지금그토록씹어댔던사회속분자가되려하니
나중에생각나면다시이어쓰도록할께지금은너무피곤해.....너무.....피...곤....해..

나의가을

어느덧 붉음 살얼음을 치고 뒤집어 올라
붓으로 쓰라린 채색 스스로 생각날지도 몰라
기억 한켠 골라 너와 나와 목을 놓아 울자
노랑이 재가되면 일어나 걷자 닿겠지 때가 되면
긴장 심장 굳어버린 펜을 찍어 찢어 짖던
으스러 내리는 소리 내 눈 떨구어 낸다

Fallen Leaves by Katoomba + Syndrome

흔한..

오고 감 어쩔 수 없는것을
사랑인가 싶을만큼 너와 나 훔친 눈물

휩쓸려 함께였나 메달려 멀어지나
가까이 팔짱했나 환각이 취해온다

라디오에선 흔한걱정 슬픔 괜한투정
녹아 감싼 납처럼 심장을 멈춰 시력
..그래 이렇게 흔한 것이었나

최선을 찾았는데 이미 누군가의 실패
금새 써낸 편지 거짓 고집 이미 누군가의 실패

미안하다 했었군 사랑한다 썼었군

오다 감 어쩔 수 없는것을
반복 다시금 이번만은 ..그 어리석음

커피 마시는 나

커피메이커를 샀다
필터에 두스푼 가득 커피를 넣는다
두잔 정도 만들 물을 넣고 딸깍
코미디 영화를 틀어놓고
컵 두개와
크림 두어개를 준비한다
곧 보글보글 소리 창문까지 쌓인 눈
컵은 위아래로 반복되고
커피가 혈관을 지난다
나머지 한잔이 식어갈때 쯤

아침일찍

아침일찍 일 어나 동네한바퀴이이
돌려면 두시간이 넘어 누구 말려 죽일려나

봄은 정말 귀찮다
하지만 여긴 병원이 너무 비싸다

폭풍우가 치는 바다아
잠잠해져 오오면
바랄게 없겠지
점점 해져 가면 슬플꺼야

질타는 싫다 했었나

오늘은 아침일찍

겨울나들이

나의 머릿속엔
정말
아 무것도 없다

보고 싶다
그냥
마냥 보고　　곁에있고
싶다　　손 잡을 수 있다면

겨울은 거
울의
나를 웃게 만
들었고 겨울은 다시 같은 주름
이게 했
다

바보같이

잊기로

새순이 돋아나던 때
전 잊기로 했습니다

한해가 가고 또 이듬해
전 잊기로 했습니다

다시 새순이 돋아나는데
전 잊기로 했습니다

그사람이 아닌 새순을

정작 잊어야 할 것은
그사람을 생각나게 하는 새순이었습니다

이별 후

관계의 결계를.. 아름다운 고리는..
낮추어진 소리를.. 잡지 않는 노래를..
기억은 다 뒤집은.. 쏟아진 그 소식은..
낭망적인 하나됨은 이분법의 잉태를..

시원한 여름.. 습기는 내게는..
안구건조.. 말라버린 고드름..
심장에 굳은살.. 자존심과 씨름..
미친듯한 고뇌도.. 멈춰있는 시계도..
잠을자는 화산처럼.. 양쪽짜리 화살처럼..

거울로 드리워진 숨결..
기억은 추억으로 귀결..
남은건 길지않을 척결..

그래.. 해볼께..

당당한 비전으로..
드라마틱한 삶을..

넌 ..보다 밝아

흐르는 물은

오랜 벗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제나 곧 반가운 대답 하지만
세상을 다 산 노인처럼
목소리엔 힘이 없다

흐르는 물에 손을 담가본다
물은 잠시 고였다가
입에 김을 한장 문 것처럼
사르르 내 손을 녹여 떠내려 간다

돌사진엔 벌거벗은 뚝심의 하반신이 있고
고교앨범엔 여드름 위로 짧게 깎은 머리가 있다
처음 맞춘 정장에 어색한 가족사진과
싼값인지 쉽게 바랜 너와 나 스티커 사진

한잔 커피처럼
가만히 맛보려 하지만
저만치 어느새 흐르는 물은

Nothin ventured, nothin gained

There were two frongs jumped into a bucket of cream on a diary farm.
“May as well give up,” said one frong in despair.
“Keep on paddling,” said the other frog.
“We’ll get out of this mess somehow!”
“It’s no use,” said the first.
“Too thin to jump. Too slippery to crawl. We’re bound to die sometime anyway.”
He sank to the bottom and died..
His friend just kept on paddling and paddling.
And by morning he was sitting on a mass of butter which he had paddled to make all by himself.
There he was, with grin on his face, eating the flies that came swarming from every direction.

낙농장의 크림통속에 뛰어든 개구리 두마리가 있었습니다.
“포기하는게 낫겠어.” 한개구리가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계속 허우적거려봐. 우리는 어떻게는 여길 빠져나가야 해.” 다른 개구리가 말했습니다.
“소용없어.” 처음 개구리가 말했습니다.
“뛰어오르기엔 너무 묽고, 기어오르기에는 너무 미끄러운걸, 우린 언젠가 죽게 될꺼야.”
그는 바닥으로 가라앉아 죽어버렸습니다.
그의 친구는 그저 계속해서 허우적거리고 또 허우적거렸습니다.
아침이 되자 그는 밤새 허우적거려 만들어진 버터위에 앉아있었습니다.
그는 사방에서 날아드는 파리들을 잡아먹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미소를 띄고...

〉 고딩때 어느 문제집에 있었던 지문.. 난 이 이야기가 그렇게 무섭던데..

The Last Question

By Isaac Asimov

최후의 질문이 반 농담으로나마 처음 행해진 때는 인류가 막 광명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딘 2061년 5월 21일이었다. 질문은 칵테일 잔을 사이에 둔 5달러짜리 내기 결과였고,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알렉산더 아델과 버트램 루포브는 멀티백의 성실한 조작원들이었다. 다른 모든 이처럼 그들도 그 거대한 컴퓨터의 수마일에 걸친, 차갑고 불빛을 번쩍이며 딸깍거리는 소리를 내는, 껍데기 속에 무엇이 있는지 잘 알지는 못했다. 그들은 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를 훨씬 넘어선 컴퓨터의 회로 구성을 대충 이해하고 있을 뿐이었다.

멀티백은 스스로 수리하고 관리하는 컴퓨터였다. 이는 멀티백이 인간이 직접 수리하고 관리하기에는 너무도 복잡하고 거대한 컴퓨터이기에 당연한 일이었다. 때문에 아델과 루포브는 이 엄청난 거인에 대해 피상적인 지식 밖에는 가질 수 없었다. 그들은 컴퓨터에 데이타를 입력하고, 컴퓨터가 이해하기 쉽도록 질문을 수정하며 컴퓨터가 낸 대답을 인간의 언어로 번역하였다. 물론 그들은 멀티백이 이루어낸 성과에 대한 영예를 동료들과 함께 향유할 수 있었다.

지난 수십년간 멀티백은 인류가 달과 화성 그리고 금성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주선의 설계와 탐사계획을 도와왔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멀리갈 수 있는 우주선을 제작하기엔 지구의 자원이 불충분했다. 장기간의 여행에는 에너지가 너무도 많이 소모되었다. 화석 연료와 우라늄의 이용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 연구되었으나, 그 매장량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멀티백이 서서히 이 어려운 문제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고, 2061년 5월 14일에 드디어 이론이 현실화된 것이다.

지구 전체가 마음껏 쓰고도 남을만한 태양 에너지가 한꺼번에 저장되고 여러가지 형태로 변환되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지구 전체가 화석연료와 우라늄의 사용을 중단하고, 그 스위치를 지구와 달의 중간 지점에서 지구를 돌고 있는 직경 1마일의 인공위성에 연결시켰다. 이제 지구 전체가 보이지 않는 태양에너지 광선에 의해 움직였다.

일주일에 걸친 축제에도 그 열기가 완전히 식지 않았기 때문에 아델과 루포브는 공공행사에서 간신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들은 멀티백의 숨겨진 본체가 있는 지하실에 숨었다. 그들이 거기에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 데이타를 정렬하는 듯 느리게 딸깍거리는 소리를 내는 멀티백은 마치 휴가를 받은 것처럼 만족스러워 보였다. 그들은 처음에는 멀티백의 휴식을 방해하고픈 생각이 없었다.
그들은 술병을 하나 들고 왔으며, 그들의 관심은 한 잔 하면서 긴장을 푸는 것 뿐이었다.
“정말 대단해.” 하고 아델이 입을 열었다. 그의 넓다란 얼굴은 피로로 인해 주름져 보였다. 그는 술잔 속의 얼음을 무심히 쳐다보며 유리막대로 잔을 저었다. “에너지를 영원히 공짜로 사용할 수 있다니. 지구를 몽땅 녹여서 쇳물로 만들더라도 거기에 사용될 에너지를 아까와할 필요가 없잖아. 이젠 공짜로 에너지를 영원히 영원히 또 영원히 쓸 수 있겠지.”

루포브는 머리를 옆으로 비스듬히 기울였다. 그에게는 반대하고 싶을 때면 즉시 핑겟거리를 생각해내는 재주가 있었고, 또 지금은 그가 얼음과 잔을 가지러 다녀와야 했었기 때문에 약간 심술이 나 있었다.
“영원한 건 아니지.” 하고 그가 말했다.
“이런, 제기랄, 거의 영원하다고 할 수 있잖아. 태양이 없어질 때 까지는 말야.”
“그건 영원한 게 아니야.”
“맞아. 하지만 수십 수백억년이 지난 다음이라구. 한 백억년 정도? 그럼 어때?”
루포브는 얼마 안남은 자신의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면서 술을 홀짝거렸다.
“백억년은 영원한 게 아니야.”
“적어도 우리 시대는 지탱할 수 있잖아?”
“화석 연료와 우라늄만으로도 우리 시대는 지탱할 수 있어.”
“맞아. 하지만 이젠 우주선을 태양 스테이션에 연결시키기만 하면 명왕성까지 수없이 왕복하더라도 에너지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 화석 연료나 우라늄을 사용한다면 불가능한 일이지. 믿지 못하겠다면 멀티백에게 물어보라구."
"멀티백에게 물어볼 필요는 없어. 나도 알고 있는 것이야."
"그럼 멀티백이 한 일을 자꾸 깎아내리지 말라구. 멀티백은 아주 멋지게 일을 처리해냈단 말야." 하고 아델이 발끈하여 말했다.
"누가 뭐래? 난 단지 태양이 영원히 지탱하지는 못한다고 말했을 뿐이야. 그게 내가 말한 것의 전부라구. 우리는 백억년 동안은 무사할 수 있겠지. 하지만 그 다음엔?" 하고 말한 루포브는 상대방을 향해 손가락을 흔들어 보였다.
"또다른 태양을 이용하면 된다고 대답하진 말라구."
둘 다 잠시 조용해졌다. 아델은 때때로 잔을 입술로 가져갔고, 루포브의 눈은 서서히 감겨졌다. 그들은 쉬고 있었다.
갑자기 루포브가 눈을 번쩍 떴다.
"우리 태양의 수명이 다하면 다른 태양으로 바꾸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지, 그렇지?"
"그런 생각한 적 없어."
"아니, 틀림없이 했을거야. 넌 논리에 약한 것이 문제야. 너는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소나기를 만나자 나무 밑으로 몸을 피한 사람과 비슷해. 알다시피 그 사람은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았지. 나무가 젖어서 비가 새기 시작하면 다른 나무 밑으로 가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무슨 소린지 알겠어." 하고 아델이 말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소리 지르지는 말라구. 태양의 수명이 다할 때면 다른 별들의 수명도 다할 거라 이거지?"
"물론 그렇겠지." 하고 루포브가 투덜거렸다.
"대폭발로 시작한 우주는 모든 별의 수명이 다할 때 끝나는 거야. 일부는 다른 것들보다 빨리 수명이 다하겠지. 거성들의 수명은 1억년도 채 안돼. 태양은 백억년을 지탱할테고 왜성들은 길면 이백억년 이상을 살아남을거야. 하지만 일조년이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어둠 속에 잠기겠지. 엔트로피는 최대에 달하고. 그럼 모든 것이 끝이야."
"엔트로피에 대해서는 나도 알아." 하고 아델이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시겠지."
"네가 알고 있는 정도는 나도 안다구."
"그럼 언젠가는 모든 것의 수명이 다한다는 사실도 알겠네?"
"물론이지. 누가 아니래?"
"네가 그랬잖아, 이 멍청아.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를 영원히 얻을 수 있다며? 영.원.히?"
이번엔 아델이 반대하고 나설 차례였다.
"언젠가는 우리가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모르지." 하고 그가 말했다.
"절대로 못해."
"안될게 뭐야? 언젠가는 할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안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멀티백에게 물어보자."
"좋아, 멀티백에게 물어봐. 할 수 없다는 쪽에 5달러 걸겠어."

아델은 취해 있었지만 다음과 같은 뜻의 문장을 멀티백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번역하여 입력할 수는 있었다: 언젠가는 늙어서 수명이 다한 태양에게 에너지의 소비없이 젊음을 되찾아줄 수 있게 될까?
이 문장은 간단하게 이렇게 번역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우주 전체의 엔트로피 총량이 대량으로 감소될 수 있을까?
멀티백은 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천천히 반짝이던 불빛은 아예 꺼져버렸고 딸깍거리는 소리도 멈추었다.
겁에 질린 기술자들이 더이상 기다릴 수 없게 된 순간에 멀티백에 연결된 텔레타이프가 활기차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출력된 결과는 겨우 네 단어에 불과했다: 자료 부족으로 대답이 불가능함.
"내기는 무효가 되었군." 하고 루포브가 속삭였다. 그들은 급히 바깥으로 도망갔다.

다음날 아침, 숙취로 인해 머리가 쿡쿡 쑤시고 입안이 깔깔해진 그들은 어제의 사건을 금새 잊어버렸다.

X X X

제로드와 제로딘 그리고 제로뎃 I, II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 초공간을 통과하는 여행이 끝났다는 문구가 비지플레이

트에 나타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즉시 미세한 분말처럼 깔려있던 별들의 모습이 화면에서 사라지고 구슬 정도 크기로 밝게 빛나는 원반이 하나 나타났다.
“저게 X-23이야.” 하고 제로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등뒤로 마주 쥐고 있던 자신의 마른 손에 힘을 주었다.
계집아이인 제로뎃들은 초공간 여행을 처음 경험하였기 때문에, 안에서 바깥쪽으로 빨려나가는 듯하던 짜릿하고 흥분된 순간을 되새기고 있었다. 그들은 웃음을 멈추고 엄마의 주위를 빙빙 돌며 외쳤다. “X-23에 도착했대요! X-23에 도착했대요! X-23에...”
“조용해라, 얘들아.” 하고 제로딘이 날카롭게 말했다. “확실해요, 제로드?”
“저 녀석이 실수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 하고 제로드는 천장 바로 아래에 불쑥 튀어나온 멋없는 금속 상자를 보며 말했다. 그것은 방을 길이로 가로질러 양쪽 끝 벽면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금속상자의 길이는 우주선 전체의 길이와 거의 비슷했다.

질문을 하면 대답해 주고, 사람이 질문을 하지 않는 동안에는 미리 정해진 목적지로 우주선을 조종해가는 역할을 하며 여러 곳에 퍼져 있는 준은하급 발전소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고 또 초공간 점프를 위한 방정식을 계산한다는 정도 외에 제로드가 마이크로백이라 불리는 이 두꺼운 금속 상자에 대해서 아는 것은 거의 없었다. 제로드와 그의 가족은 단지 우주선의 편안한 거주 지역에 살면서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다. 누군가 제로드에게 마이크로백(Microvac)이라는 단어의 마지막 “ac”가 고대 영어로 “자동 컴퓨터(Automatic Computer)”라는 뜻이라고 말해준 적이 있었지만, 그는 그 사실을 이미 기억하지 못했다.

비지플레이트를 바라보는 제로딘의 눈은 촉촉히 젖어있었다.
“어쩔수가 없네요. 지구를 떠날 때는 재미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었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거야?” 하고 제로드가 물었다. “지구에 남겨둔 것은 하나도 없잖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X-23에 있을거야. 당신은 혼자도 아니고, 개척자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 그 행성에는 이미 백만이 넘는 사람이 살고있어. 제기랄, 우리의 고손자는 X-23의 인구밀도가 너무 높아서 딴 행성으로 이주하게 될거라구.” 생각을 하느라 말을 멈추었던 제로드는 잠시후 다시 입을 열었다. “이것 보라구. 이렇게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시대에 컴퓨터가 항성간 여행을 가능하게 한 것은 정말 행운이란 말야.”
“알아요. 안다구요.” 하고 제로딘이 울먹이며 말했다.
제로뎃 I이 즉시 말을 받았다. “우리 마이크로백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마이크로백이에요.”
“나도 그렇게 생각한단다.” 하고 제로드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마이크로백을 소유하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었고, 제로드는 자신이 그의 아버지 세대나 그 밖의 다른 세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을 고맙게 생각했다. 그의 아버지가 젊었을 때는 한대뿐인 컴퓨터가 100 평방 마일이나 되는 공간을 차지했었다. 각 행성에는 컴퓨터가 오직 한 대뿐이었다. 그들의 이름은 `행성 AC’였다. 그들은 거의 천년동안 꾸준히 크기가 커지다가 갑자기 엄청나게 작아졌다. 트랜지스터 대신 사용하게된 분자 밸브 덕택에 가장 큰 행성 AC라 하더라도 우주선의 절반 정도 크기로 축

소될 수 있었다.
제로드는 자신의 마이크로백이 태양을 처음으로 길들였던 고대의 원시적인 멀티백보다 몇배나 우수하고, 초공간 여행 문제를 처음으로 해결하여 항성간 여행을 가능케한 지구의 행성 AC(가장 대규모였던)와 거의 비슷한 성능을 지니고 있다는데 은근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별도 많고 행성도 많으니까," 하고 생각에 잠겨 있던 제로딘이 한숨 지으며 말했다. "미래의 가족들도 우리들처럼 영원히 새로운 행성을 찾아 나서겠네요."
"영원히 하는 것은 아니지." 하고 제로드가 웃으며 말했다. "언젠가는 끝나. 수십억년이 걸리겠지만 말이야. 당신도 알다시피 별들도 언젠가는 수명이 다하거든. 엔트로피는 계속 증가하고."
"아빠, 엔트로피가 뭐예요?" 하고 제로뎃 II가 새된 목소리로 물었다.
"엔트로피란 우주의 수명을 나타내는 단어란다, 얘야. 너도 알다시피 모든 것은 자신의 수명이 있지 않니? 네가 가진 걷고 말하는 꼬마 로보트를 생각해보려무나."
"로보트처럼 파워-유니트를 갈아 끼우면 안되나요?"
"별들이 바로 파워-유니트란다. 별들의 수명이 다하면 더 이상의 파워-유니트는 있을 수가 없지."
제로뎃 I은 즉시 비명을 질렀다. "안돼요, 아빠! 별이 죽는 것은 싫어요."
"잘 하셨네요." 하고 분개한 목소리로 제로딘이 속삭였다.
"얘들이 겁을 먹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 하고 제로드가 다시 속삭였다.
"마이크로백에게 물어봐요." 하고 제로뎃 I이 구슬프게 말했다.
"어떻게 하면 별을 도로 살릴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그래볼까?" 하며 제로드는 마이크로백 호출기 앞에 마지못한 듯 앉았다. "아무리 그래도 그 일은 불가능할텐데..." 라고 그는 중얼거렸다. 그는 호출기의 화면을 보며 마이크로백에게 물었다. "별들의 수명을 무한히 연장할 수 있는가?"
제법 시간이 흐른 뒤, 마이크로백 호출기의 화면에 결과가 나타났다. "자료 부족으로 대답이 불가능함."
제로드는 제로뎃들을 보면서 웃었다. "마이크로백도 잘 모르겠다고 하는구나."

X X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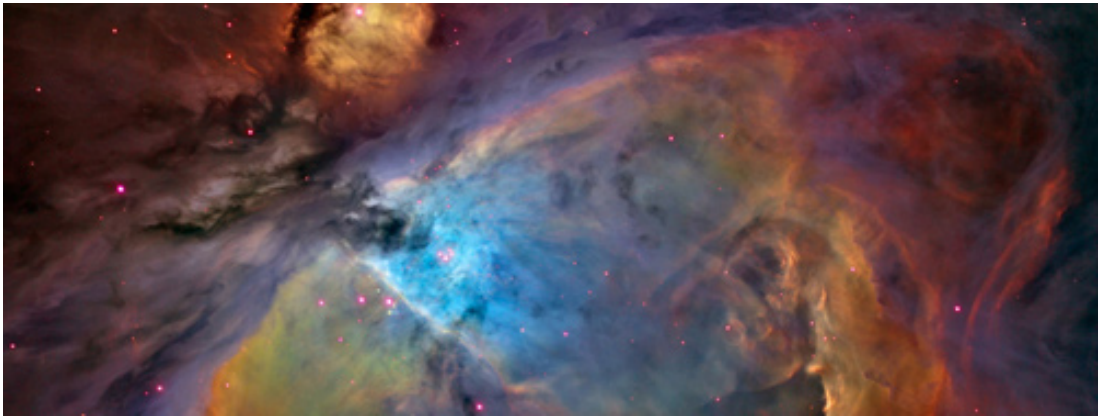
라메스의 VJ-23X는 소규모 삼차원 은하계 지도의 어두운 내부를 응시하면서 말했다. "이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니크론의 MQ-17J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히 심각한 문제지. 알다시피 지금 같은 속도로 인구 증가가 계속된다면 5년안에 은하계 전체가 꽉 차고 말거라구."

그들 둘은 키가 크고 잘 생긴 젊은이들로서 20대 초반 정도로 보였다.

"하지만 아직도 난 비관적인 보고서를 은하 의회에 제출한다는 게 망설여져." 하고 VJ-23X가 말했다.
"다른 보고서를 제출할 수는 없어. 보고서가 한자라도 바뀐다면 전체 내용이 엉망이 되어버릴거야."
VJ-23X는 한숨을 쉬었다. "우주는 무한히 넓어. 비어있는 은하계의 수는 천억개도 넘는다구."
"천억개는 무한한 것도 아니고 시간이 흐르면 점점 덜 무한해져. 생각해 보라구! 인류가 최초로 항성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낸 것은 이만년 전이었고, 항성간 여행이 가능해진 것은 겨우 몇백년 전이야. 인류가 최초로 한 행성을 가득 메우는 데는 백만년이 걸렸지만, 은하계의 나머지 부분을 채우는 데는 만오천년밖에 걸리지 않았어. 이제 인구는 매 10년마다 두배로 늘어나고..."
VJ-23X가 말을 가로막았다. "그건 우리들이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이지."
"맞아. 이제는 죽는 사람들이 없지. 하지만 죽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커지는거야. 은하 AC는 인류를 위해 정말 많은 일을 해냈어. 하지만 노화와 죽음을 방지하는 방법을 개발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업적을 망쳐버렸다구."
"하지만 너도 죽고 싶지는 않겠지?"
"물론 죽고 싶지는 않아." 하고 대뜸 대답한 MQ-17J는 부끄러운지 목소리를 낮추었다. "죽고 싶지는 않지. 아직은 젊으니까. 더우기 수많은 별들 중에서 내가 사용하는 것은 겨우 두개 뿐이란 말이야."
"옳은 얘기야. 하지만 100퍼센트의 효율로 에너지를 사용하더라도 종말을 지연할 수 있을 뿐이야. 우리의 에너지 소

모량은 인구 증가 속도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빨리 증가하고 있거든. 이주할 은하계가 없어지는 것보다 먼저 에너지를 모두 소모해 버리겠지. 좋은 지적이야. 정말 좋은 지적이라구."
"성간 가스에서 새로 별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아니면 분산된 열을 한군데로 모아도 되겠지." 하고 MQ-17J가 비웃는 것처럼 말했다.
"엔트로피를 역전시킬 방법이 틀림없이 있을거야. 은하 AC에게 물어보라구."
VJ-23X는 반쯤 농담으로 한 말이었으나, MQ-17J는 정말로 그의 AC-호출기를 주머니에서 꺼내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해봐서 나쁠 것은 없겠지. 인류가 언젠가는 마주쳐야할 운명이니까." 하고 그가 말했다.

그는 엄숙하게 자신의 조그마한 AC-호출기를 쳐다보았다. 그것은 모서리의 길이가 2인치에 불과한 육면체로 그 자체는 아무 것도 아니지만, 초공간을 통하여 모든 인류에게 봉사하는 거대한 은하 AC에 연결되어 있었다. 초공간 자체가 은하 AC의 일부분으로 통합되어 있었다. MQ-17J는 언젠가 은하 AC를 보게 될 날이 있을까 하고 생각하며 잠시 머뭇거렸다. 은하 AC는 과거에 사용되던 분자 밸브를 대신하는 중간자 회로를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역장으로 구성된 하나의 세계였다. 그러나 그 구성단위가 원자보다 작음에도 불구하고 은하 AC의 반경은 1000피트가 넘었다.



MQ-17J는 그의 AC-호출기를 향해 갑자기 질문을 던졌다. "엔트로피는 역전될 수 있는가?"
VJ-23X가 당황하여 말했다. "이것 봐, 정말 물어보라고 한 소리는 아니었어. 농담이었다구."
"물어봐서 나쁠 것도 없잖아."
"엔트로피가 역전될 수 없다는 것 쯤은 알잖아. 연기와 재로부터 나무를 만들어낼 수는 없어."
"네가 사는 곳에는 나무라곤 한그루도 없는데, 그건 또 어떻게 알았니?" 하고 MQ-17J가 말했다.

그들은 은하 AC의 목소리가 들리자 겨우 조용해졌다. 책상 위에 놓인 조그마한 AC-호출기로부터 들려오는 은하 AC의 목소리는 가늘면서도 아름다왔다: 자료 부족으로 대답이 불가능함.

"저것보라구!" 하고 VJ-23X가 말했다.

두 남자는 다시 은하 의회에 제출해야하는 보고서를 두고 입씨름을 벌이기 시작했다.

X X X

치 프라임의 정신은 가루처럼 널리 퍼진 별들을 세며 새로운 은하계를 향하여 뻗어갔다. 이 은하계는 처음 보는 것이었다. 과연 모든 은하계를 다 돌아볼 수 있을까? 모든 은하계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하지만 행성의 표면에 존재하는 그들의 육체는 거의 죽어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인간의 정신은 점점 더 육체를 벗어나 우주에 머무르기 시작했다. 육체를 벗어난 정신만이! 불멸의 육신은 이제 끝없는 세월을 행성의 표면에서 헤메고 있었다. 인간

들이 때때로 자신의 육체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것도 점점 드물어졌다. 새로이 태어나 믿을 수 없으리만치 위대한 대열에 함께 서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문제될 것은 없다. 현재 존재하는 사람만으로도 이미 우주는 비좁았다.
치 프라임은 또 다른 정신을 만나 겨우 자신의 공상에서 깨어났다.

"나는 치 프라임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치 프라임이 말했다.
"나는 디 서브 운입니다. 당신은 어느 은하계에 삽니까?"
"우리는 그저 은하계라고 부릅니다. 당신은요?"
"우리도 우리 은하계를 그저 은하계라고만 부릅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사는 은하계를 은하계라고만 부르죠. 그래서 나쁠 것은 없지요."
"맞습니다. 사실 모든 은하계는 다 똑같으니까요."
"모든 은하계가 다 똑같지는 않지요. 인류가 처음으로 태어난 은하계가 있습니다. 그 은하계만은 특별하죠."
"어느 은하계인지 아십니까?" 하고 치 프라임이 물었다.
"글쎄요. 전 모르겠군요. 하지만 우주 AC가 알겁니다."
"그러면 우주 AC에게 물어볼까요? 갑자기 궁금해지는군요."

치 프라임의 사고가 은하계 자체가 넓은 표면에 뿌려진 가루 하나처럼 보일 정도로 확장되었다. 수천억이 넘는 은하계마다 우주를 자유로이 떠도는 정신과 그 정신이 한 때 깃들어 있던 불멸의 육체가 함께 존재했다. 그러나 오직 한 은하계만은 인류가 발생한 은하계라는 이유로 특별했다. 수천억의 은하계 중 하나가 아주 먼 과거에 유일하게 인류가 살고있던 은하계였다. 치 프라임은 호기심에 가득차 이 은하계를 보고 싶다는 소망을 말했다. "우주 AC여! 어느 은하계에서 인류가 처음으로 발생하였는가?" 우주 AC는 모든 세계와 모든 우주에 걸쳐 늘어뜨려진 자신의 수신기를 통해 이 말을 들었고, 각 수신기는 초공간을 통하여 은하 AC가 존재하는 미지의 장소로 연결되어 있었다. 치 프라임은 우주 AC가 존재하는 곳까지 자신의 사고를 뻗칠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 한 말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우주 AC는 직경이 2피트에 불과한 발광 구체여서, 알아보기 조차 힘들다고 했다.

"하지만 그렇게 작은 물체가 어떻게 우주 AC가 될 수 있소?" 하고 치 프라임이 물었었다.
"우주 AC의 대부분은 초공간에 존재합니다. 초공간에서 우주 AC가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는 알 수 없지요." 하고 그는 대답했었다.

또한 치 프라임이 알고 있기로는 아주 오랜 옛날이래로 우주 AC를 만들거나 개량하는데 관여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각 우주 AC는 자신의 후계자를 스스로 설계하고 제작했다. 각 우주 AC는 또한 자신이 존재하는 백만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동안 축적된 정보를 모아 더욱 개선되고 우수한 후계자를 만들어, 자신이 모아두었던 정보를 넘겨주고 자신도 그 일부로 흡수되곤 했다. 생각에 잠겨있던 치 프라임은 우주 AC가 응답을 시작하자 정신을 차렸다. 우주 AC는 아무 말도 않고 대신 한줄기 빛을 보내왔다. 치 프라임의 정신은 은하계들의 바다를 지나 한 은하계로 집중되는 빛을 따라갔다.

무한히 먼 곳에서 무한히 맑은 생각이 전달되어왔다. "이것이 인류가 발생한 은하계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다른 은하계와 특별히 다른 것이 없었기 때문에 치 프라임은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를 따라온 디 서브 운이 갑자기 물었다. "인류가 처음으로 태어난 별은 어느 것인가?"
우주 AC는 간단하게 답했다. "인류가 태어났던 별은 폭발하여 신성이 되었었습니다. 현재는 백색왜성이지요."
"거기에 살던 인간들은 모두 죽었는가?" 하고 치 프라임이 놀라서 생각해 보지도 않고 물었다.
우주 AC가 말했다. "그런 경우에는 새로운 별을 만들어 그들의 육체를 옮겨 둡니다."
"아, 그렇지." 하고 말한 치 프라임은 그러나 알지 못할 상실감이 자신을 압도해 오는 것을 억제할 수 없었다. 그의 정신은 인류가 태어난 은하계를 벗어나, 그것이 흐릿한 은하계 바다의 한 점으로 사라질 때까지 뻗어나갔다. 그는 그것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다.
디 서브 운이 물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별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인류가 태어났던 별은 이미 죽었구요."
"별은 죽게 마련이죠. 그게 뭐 잘못됐나요?"
"하지만 모든 에너지가 사라지고 나면, 우리의 몸도, 당신과 나도, 결국 별들과 함께 소멸되고 말겁니다."

“그건 수십억년 후의 일이잖소?”
“설혹 수십억년 후의 일이라도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참을 수 없습니다. 우주 AC여! 어떻게 하면 별들이 죽지 않을 수 있는가?”
디 서브 운이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지금 엔트로피를 역전시킬 방법이 있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곧이어 우주 AC가 답했다. “아직 자료가 부족하여 대답할 수 없습니다.”

치 프라임의 정신은 자신의 은하계로 돌아갔다. 그는 더이상 디 서브 운과 노닥거리고 싶지 않았다. 디 서브 운이 1조 광년 밖의 은하계에서 기다리고 있는지 혹은 치 프라임의 별 바로 옆에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건 상관할 바가 아니었다. 기분이 몹시 상한 치 프라임은 항성간 수소를 끌어모아 직접 조그마한 별을 하나 만들어 보았다. 별들이 죽어가더라도, 새로운 별을 만들 수는 있을 것이다.

X X X

인간은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이제 인간은 정신적으로 하나가 되었다. 수백 수천억년을 살아온 그의 몸은 방해받지 않는 행성의 지하에서 기계의 보호를 받으며 조용히 쉬고 있었고, 또한 모든 육체에 깃들던 정신은 하나로 합쳐져 이제 더이상 구별할 수 없었다.

인간이 말했다. “우주는 죽어가고 있다.”

침침한 은하계를 둘러보았다. 거성들은 이미 오래 전에 사라져 우주에서 가장 침침한 먼지의 일부로 변했다. 남아있는 거의 모든 별들은 죽음을 향해 치닫고 있는 백색왜성이었다. 자연이 혹은 인간이 직접 만든 별들이 우주 먼지로부터 생성되곤 했지만, 그것들도 이미 죽어가고 있었다. 백색왜성들 간에 충돌이 일어나 거대한 힘이 해방되면 새로운 별이 태어나곤 했지만, 천개의 백색왜성이 죽어갈 때마다 하나의 꼴로 새로운 별이 태어났고 그나마도 이젠 끝나갔다.

인간이 말했다. “코스믹 AC의 도움을 받고 주의깊게 사용한다면 우주의 에너지는 앞으로도 수십억년간 더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모든 것이 끝나고 말 것이다. 아무리 아낀다 하더라도 한번 사용한 에너지는 사라지고 다시는 복구될 수 없다. 엔트로피가 극대를 향하여 영원히 증가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말했다. “엔트로피를 반전시킬 수는 없을까? 코스믹 AC에게 물어보도록 하지.”

코스믹 AC는 인간을 감싸고 있었지만 우주에 존재하지는 않았다. 코스믹 AC는 초공간에 존재하고 있으며, 물질도 에너지도 아닌 것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 크기와 본성에 대한 의문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는 전혀 표현할 수 없었다.

“코스믹 AC여, 엔트로피는 얼마나 역전될 수 있을까?” 하고 인간이 물었다.
코스믹 AC가 대답했다. “아직 자료가 부족하여 대답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말했다. “그렇다면 자료를 수집하라.”
코스믹 AC가 말했다. “나는 자료를 계속 수집할 것입니다. 나는 이미 천억년이 넘는 기간동안 자료를 수집해 왔습니다. 내 선임자와 나는 이 문제를 여러번 질문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자료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말했다. “엔트로피를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는가? 아니면 이 문제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인가?”
코스믹 AC가 답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말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보를 모두 갖추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인가?”
코스믹 AC가 말했다. “자료가 부족하여 대답할 수 없습니다.”
“해답을 찾기 위한 작업을 계속할 것인가?” 하고 인간이 물었다.
코스믹 AC가 말했다. “물론입니다.”
인간이 말했다. “기다리겠네.”

X X X

별과 은하계들이 죽어서 희미한 먼지로 변해갔다. 우주는 10조년에 걸친 멸망 과정을 지나 점점 어두워졌다. 인간은 하나씩 AC와 결합하고, 그들의 육체는 손실이라기 보다는 획득의 과정을 거쳐 정신적인 정체감을 잃어갔다. 인간의 마지막 정신은 증발하기 전에 잠시 우주 전체를 통하여 하나밖에 남지 않은 어두운 별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낮은 밀도로 퍼진 물질들을 둘러보았다. 여기저기에 남은 미소한 열의 흔적이 점점 사라져서 모든 우주는 절대 영도를 향하여 치닫고 있었다.

인간이 말했다. "AC여, 이것이 끝인가? 이 혼란이 극복되어 원래의 우주로 돌아갈 수는 없는가? 그것은 진정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말인가?"
AC가 말했다. "아직 자료가 부족하여 대답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마지막 정신은 사라져갔고 AC만이 남았다 - 초공간의 내부에.

X X X

물질과 에너지의 시대가 종말을 맞이하자 공간과 시간도 함께 사라졌다. AC만이 10조년전에 반쯤 취한 기술자들이 처음으로 질문한 이래 인간이 끊임없이 물어봤지만 한번도 응답하지 못했던 최후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하여 남아있었다. 모든 다른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최후의 질문에 응답하기 전까지 AC는 자신의 작동을 중지시키지 않을 작정이었다. 수집할 수 있는 정보는 결국 한계에 다다랐다. 수집할 정보가 더이상 남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수집된 정보는 아직 완전히 수정되지도 않았고 각 정보들 사이에 가능한 모든 관계를 조사해야 했다. 이 일을 하는데 무한한 간격(시간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이 소모되었다.

AC는 결국 엔트로피의 총량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다. 하지만 AC가 최후의 질문에 대답해 줄 인간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문제는 없었다. AC가 직접 시행해 보일 해답은 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다.

또다시 무한한 간격을 소모하면서 AC는 해답을 시행할 최선의 방법을 모색했다. AC는 주의깊게 프로그램을 작성했다. AC의 의식은 한때는 우주였으나 지금은 혼돈으로 화한 것에 집중되었다. 작업은 한 단계씩 찬찬히 진행되어야 했다.

그리고 AC가 말했다.

"빛이 있으라!"

그러자 빛이 있었다.

출처 : http://flyocean.mireene.com/aquamp/

아악!! 뉴 논스톱!!

이 사진..
구리구리 양동근의 저 설명할 수 없는 표정과 어리버리 장나라를 보는 순간..
참을 수 없이 뉴논이 보고싶어 졌다..

그리고
너와 나 또한..

홍삼톤

오호
홍삼톤이다
황금빛 눈부시게
45도 호를 그리며
모퉁이를 물고 빨자

쪽
쪽

웃 맛없는 홍삼톤

썬키스트

해를 집으면 빛으로 둥그런 가장자리 그림자 새큼한 한쪽눈 찡긋 행복해
하얀 하늘에 햇빛은 유난히 밝고 누워 손에 든 벅찬 마음은 함께 그렇게
마치 땀에 웃통 벗고 쨍쨍한 날씨 덤벼 등으로 얼음물 뼛속을 시원케
모서리없는 꿈을 꾸듯 와사삭 튀는 방울방울 후아 개운해
침을 모아 삼켜 느낌을 영원히 간직 상큼 아름다운 새벽까지 눈부신 …

사랑, 희망, 기다림

사랑을 보냄에, 그가 받았고
사랑이 옴에, 내가 붙잡았다

맞잡은 두 손이
차갑지 않음은

하나됨의 희망이
혈액처럼 서로를
관통하기 때문이다

이제, 함께
기다린다

이 노래가 끝난 후
네 이름을 부를 나를
또 불리워질 내 이름을

그녀를 잡아요

마음이 바뀌기 전에 잡어..
빨간 구두를 신고 시계를 되돌리는 그녀를..
시작은 반.. 미래는 이미 밝어..

맑어.. 내일 하늘은..
초침이 움직이는 만큼.. 가까워.. 손을 잡을 날은..

뭘까.. 무지개 너머.. 그 흑과 백 사이로..
먼길 모퉁이를 돌아 빛을 찾는 기분..
기억을 잃을 듯 모질게 생각했지만..
다시금 꿈꿔버린 추억을 그려낸 물감..

활짝 웃어봐.. 심호흡을 크게..

언젠가 말했던..
최선이 오직 전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by 딴지

다시 생각해봐... 그게 진짜 사랑인지...
그럼 '넌 사랑을 알아?' 지랄같은 질문이지.. 성경에 보면 나와있어.. 어딘진 몰라.. 찾아봐~
뭣도 모르고 여친한테 사랑한다 그랬지.. 그래.. 난 남자야.. 누군지 궁금하겠지..
이런 인터넷 구석에 먼지 먹고 허여멀게진 림미노닷컴 찾아오는 걸 보면 보통 폐인은 아닐꺼야.. 안그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내가 오늘 감동적인 걸 봐서 뻘이 땡긴다..
보고싶은 감정이 생긴다면.. 그게 특히나 연애할 수 있는 연령대의 이성이라면..
자신의 주변인으로 그사람을 끌어들이는 첫단계가 되는거겠지..
근데 딱보고 '아~ 이쁘다.. 사귀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넌 변태야.. 무슨 생각 하는거야? 이쁘다고 사귀냐?? 쳇..
또하나.. 분위기에 휩쓸린 경우가 있지.. 완전 골때리는 경우인데..
너도나도 커플 만들고 어라? 나도 하나 있어야겠네.. 하는.. 골빈 사고방식..
특히나 대학초기.. 동아리까지 들었다면 말 다한거지.. 넌 착각하는 거야..
그렇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귀는 건.. 사랑과는 거리가 멀어..
좋아하는 감정과 사랑하는 감정은 천지차이야.. 잘 들어봐..
보고만 있어도 행복하고 가슴 뛰고 뭐든 다 해주고 싶지만..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겠지.. 저 사람도 나와 같을까?
씨바.. 절라 유치한 의심의 시작이지.. 그건 사랑이 아니야..
게다가 전지현 낭자의 명언에 따르면..
어떤 사람을 보고 가슴 뛰는 기간은 어떠한 연인도 2년을 넘기지 못한다더군...
어때? 이런 말 인용하니까 끄덕끄덕 하냐?? ㅋㅋ
그럼 그 2년 후부터는 어떨까? 무슨 재미로 만나?? 절라 밋밋할꺼 아냐.. 안그래??
골머리 짜내던 이벤트도 바닥나고.. 맨날 만나서 하는 짓이 그게 그거고...
점점 다른 사람에게 시선이 돌아갈 때 아냐.. 잘 생각해봐.. 지긋지긋 하겠지...
근데 그게 아냐.. 딱히 2년이라고 볼 순 없지만.. 누구나 이런 상황이 와..
그럼 각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천천히 생각해 보는거야...
내가 이 사람과 어떻게 시작했지?? 뭣땜에 좋아했을까?? 어떻게 사겨왔지??
이런 생각.. 근데.. 두번째 질문에서 이런 답변이 나올 수 있어..
'난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좋아.. 뭔가를 특별히 좋아하는건 그게 없어지면 끝나는거잖아..'
참나.. 어떻게 모든 것이 좋을수가 있어..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냐고..
흠.. 그럼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나? '맘에 안드는건 바꿔버리면 되지 머..'
연인은 어찌되었든 서로 만나면서 두리뭉실 닮게 되겠지.. 비슷비슷하게..
아무튼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오며 생각해보면 현재는 사라지고 그 사람의 얼굴에 추억만 보이겠지..
그리고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사랑하는건.. 현재를 즐기는게 아니야..
근데..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야비하게 이것저것 짜맞추는.. 개새들의 연애방식..
또는 '저 사람을 위해 모든걸 바치리라.. 난 어찌 되는 상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참나.. 절라 옛날같은 단세포 새끼들... 니 이름은 제대로 갖고나 있냐? 쳇..
두가지 모두 극과 극이라고 생각해.. 좋지 않아.. 절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건... 첫눈에 이루어질 수 없어.. 그건 착각이야.. 다시 생각해..
어떤 빠가들은 남 눈치보면서 사랑을 만들더구만... 어이가 없어서.. 가식적인 새끼..

음.. 쓸데없이 이런저런 말이 길어졌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다바람 맞는 것 처럼 두팔을 쭉 벌리고 그 사람을 숨쉬도록 해..

그리고 절대 잊지 말아야 할건.. 형용할 수 없을만큼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잊지 않을 자신이 있냐는 거야... 그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보이지 않을 자신이 있냐는 거야..
외롭다고 다른 사람을 찾지 않을 자신이 있냐는 거지... 변명 만들지 않을 자신 있냐는 거야..

근데.. '머야.. 요즘 세상에 이딴 식으로 사랑 챙기는 애들이 있냐??' 하고 반문한다면..
난 '고작 그딴 생각할려고 내 글 읽었냐?? 병신..' 이라고 답해줘야지..
먼 소리 써놨는지 이해한 사람 혹시 있나? 머리 아파지지? ㅋㅋ 잘들 꾸려나가서~

〉 2002년도.. 림미노닷컴에 올라왔던 글..

결정은 네가 하는 것

남자친구를 둔 여자나..
여자친구를 둔 남자에게..

그 사람이 아무리 평소에 젠틀하고 깔끔하고 친절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이며 생각이 옳은 것은 아니다..
결국 결정은 네가 하는 것..
네가 싫으면 싫은 거고.. 그게 끝이다..
고민할 것도.. 싫은데 미적미적 따라가주는 것도.. 어리석다..

네가 싫다면 그렇다고 분명히 밝히는게 좋다.. 꼭..

세상은 말이지..

문득..
생각이 들었어....
세상은...
나 없이도 너무..
잘.. 돌아가...

난... 세상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을 줄 알았어...
나 하나만 믿고 혼자서 잘 해낼 수 있을 줄 알았거든...
그런데...
나 없이 너무도 잘 꾸려가는 세상에게 질투가 나..
세상에게 난.. 잠깐 살다 사라지는 한명 인간에 불과하거든...
내가 어찌 해보려고 발악해봤자.. 시간은 흐르고 난...
그리하면 세상의 승리지... 세상은 내게 감정이 없거든.. 있어도 무수히 감추고 있던지..
8살짜리 꼬마가 내게 도전장을 냈어.. 저녁 6시에 운동장 구석에서 한판 붙자고..
그런데 난 그날 저녁 6시에 친구랑 채팅하느라 깜빡 했지모야..
그런거야... 세상에게 내 존재는...

그런데 생각해보자...
어차피 지금껏 늘어놓은 말들이 사실이라면...
날고 기어봤자 빠져나갈 수 없는 구슬 속 인생이라면..
의미없이 늙어 죽느니 뭔가 이루어 놔야 하지 않겠어?
나는 짧게 살다 갈지라도... 내가 남긴 것들은 오래 전해질 테니까..
하루를 이틀처럼... 바쁘게 살아가면 수명도 두배로 늘릴 수 있는거 아닐까?
지금의 몹시 그리운 기다림이.. 이 고독... 외로움이..
훗날 내게 두배의 엔돌핀을 쏟아주지 않을까.. 그렇겠지?

쓸데없는 잔가지는 치고, 굵직한 내 인생의 나무를 키워가겠어..
그래서 세상을 내게... 내 그늘에 쉬게 하겠어.. 그리고..
내 가지에 피어난 잎사귀와 꽃들에게.. 기다림과.. 믿음의 기쁨을 전해주겠어..
향기를 타고 영원히..... 내 흔적을 찾을 수 있게....

편지

유치한 질문 같지만..
혹시 누군가를 진정 아껴본적 있어? 아니, 인생의 중심축이 휘청일만큼 아파본적 있어?
수년이 지난 지금도 여태 설레, 안고싶어 그 눈빛 코와 입술, 마주잡은 두 손이 차갑지 않음을, 놓기 싫은 추억을 더듬어, 너 또한 역시 내 이름을 불러주면, 달려갈텐데, despite this fucking distance, 함께 담아갈텐데, 모든 것을 쏟아 그냥 너만 있으면, 생각할 것 없이 그저 안아줬으면.. someday, 만나겠지, 늘상 그래왔듯 눈으로 웃겠지, everyday 조금씩, 서로를 닮겠지.. 가능한 일일까, 환상, 항상, 섣부른 기대, 과장된 미래, 안주할 기반없는 가난한 시인, 난, 안녕, 잘 가, 그냥 떠나 보낸다, 비현실적 신음을 펜으로 토해낸다.. dejavu, all over again, feels like a dream, but dream won't set me free, go up & down like marry-go-round, music gets loud, but I'm still on same spot.. 누군가의 팔에 안겨, 누군가를 바라보고, 누군가와 시간을 맞춰, 누군가의 기억에 살겠지.. 약속한 미래와 야속한 현실은 너무 멀어, 준비한 선물을 끝내 건내지 못해, 갈증은 자주 나를 태웠지, 가파른 그림자를 넘어 빛을 찾았지만, 스펙트럼, 갈피를 잡지 못해 갈라진, 화려한 시작과 희미한 끝, 아니 뭐 아직 시작도 없었는걸.. 적어도.. 무한평행 두 선처럼, 같은 방향이라도 봤으면.. 날카로운 가위 끝처럼, 멀어지진 말았으면.. say it, like no one is listening, say it.. say it..

kinetic happiness

행복의 정의를 찾아본지 오래다.
그것은 내 곁에 있었던가? 아님 그것의 곁에 내가 있었던가..
어찌되었든 이젠 상관없다. 행복의 정의보다 중요한 행복의 주체를 찾았으니까.

오래도록 잊고 있었던 완전한 이완상태. 고요.
정적보단 재잘거림이 어울릴 가슴 벅찬 기분.

나약한 날 반증한다 했었나. 이해타산에 의한 자기합리라 했었나.

사각형을 가리려는 곡선들에 치를 떨었건만,
어느새 그 곡선을 따라 흐르듯 빙긋 웃고 있다.
강물이 숨 쉬듯 지극히 자연스러운...

진리는 진실의 통계이며, 진실은 사실의 교집합이다.
내 존재가 진실일지라도 네가 없다면 그것은 사실조차 될 수 없는 연역적 모순일 뿐이다.
그만큼 넌 내게 중요하다.

날 형성하고 존재 자체를 완성하는 마지막 연결고리는 바로 내가 아닌 너이기에...
네가 없으면 난 죽은 것, 아니 살았는지 조차 알 수 없는 공간적 데이터에 불과하겠지.

난 그렇게 오늘도 숨 쉬고 있어. 바다바람 맞듯 널 호흡하고 있어.

느껴져? 이제 다시..

안녕 = bye hi.

kinetic happiness.

forever & ever

When I see your Smile, I can face the world..

When I hear your voice, I can sound the truth..

When I think of what a woman should be, it's you that I first think of..

You're always there with full of regal grace..

You're my heart in a celestial human form,

and a soul-mate I could never replace..

편지2

기억나니? 그때 christmas tree 우리둘이 kiss 사람들의 glance
don't give a shiii 시간은 멈춰 just for two of us
떨었어 몸을 바람이 추워서 하지만 맞춘 우리 입술의 감촉은 심장 박동을 더 빠르게
바르게 멋진 남자가 되리 멋쩍은 다짐 가진 건 오직 몸뚱아리 하나지만 가짜는 아니라는 고집으로
굳은 신념으로 매일매일 기념하리 everyday's birthday to you baby, all the love for you,
그대는 내 삶의 등불, 그리고 우리 사랑은 마르지 않는 강물, god bless you

어여쁜 그댄 나의 무지개 따뜻한 봄날 시원한 비를 더 빛나게 비추는
맞잡은 두 손이 차갑지 않음은 혈액처럼 관통하는 하나됨의 희망
괜히 묻는 수도없이 반복했던 질문에는 항상 같은 대답 "I'm here for you, and I love you too"
삶에 지쳐있지만 표정은 항상 밝게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그대 눈을 주시
너를 만난 후에 난 항상 같은 꿈 그속에서도 함께 그만큼의 기쁨
눈을 뜨고 그댈 만나 목소리를 듣고 손을 잡고 걷는 지금은 마치 천국에 가깝고

우리 여태 힘들고 맞지 않아 다투고 고민도 심했고
잠시 숨가빴지만 그저 순간뿐인거야
이제 우리 둘사이 행복만이 반복 될꺼야
괜찮아 세상 온갖 시기 질투 꺾어 왔잖아
봤잖아 이렇게 지금 우리 함께 있잖아
머잖아 기쁨과 축복은 언제나 우리꺼야
알잖아 추억보다 아름다운 미래
우리 이제 서로를 숨쉬자 향기를 타고 영원히
우리 사랑 찾을 수 있게

..싶다

내보이고 싶다.. 몹시..

포장따위 뜯기전 호기심에 설레이는 떨림도 좋지만..
그냥.. 마음껏 즐기고 싶어.. 속내를 드러내며 후련하게 웃어제끼고 싶어..

바닷 바람을 맞는 것 처럼 두팔을 크게 벌리고 그 사람을 숨쉬는거야..

몰아치는 태풍도.. 맞서.. 풍차를 향해 달리는 저 기사처럼..
힘들지? 쉬어 이제 내게.. 자연스럽게.. 괜찮아.. 네 이야기를 들려줘..

어려운 순간에는 말이야.. 토할것 같이 지긋지긋한 상황에 말이야..
머리를 터질듯 쥐어짜는 그런 현실을 만나면 말이야..

탁 털어.. 한숨을 내쉬고.. 자리에서 일어나 쭉 뻗어 시원하게 기지개를..
call me.. 힘이 되는거야.. you deserve all.. 이른 봄날 볼을 간지럽히는..
기운내.. 머리를 맑게.. 그밖의 것들은 함께.. 걱정하지마..

안고싶다.. 알고싶다.. 듣고싶다.. 내게 손을 내미는 네 눈빛을 보고싶다..
일정을 맞추고 공통점을 만들어가고 싶다.. 같은 기억을 간직하고 싶다..
Keen Stupidity for Love.. ...싶다

얕은 생각에.. 오늘도..

나는 오늘도 얕은 생각에 빠진다. 내가 만약 여기 없다면,
내가 만약 전혀 다른 환경에서 나란 놈을 잊고
이 빌어먹을 사회에서 벗어나 살아간다면,
지금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상황들이 사실이고
머리가 멍 해질때 크게 눈을 한번 깜빡이면
모든것이 바뀌고 내 뜻대로 변화된다면...
후회뿐인 과거와 모순뿐인 현실을 집어치우고
나의 지각과 경험과 슬픔을 그대로 안은채
전혀 다른 시간의 입구를 찾아낸다면...

그래..
지똥나라엔 타임머신이 있다던데...

ÆND¿

펴낸이 : 임 민호
초판 발행일 : 2007년 4월 20일
2쇄 발행일 : 2007년 12월 1일
3쇄 발행일 : 2010년 10월 12일
디자인 : Lmh Design Group.

이 책은 저자와 Lmh Design Group.의 동의 없는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published by Lmh Design Group.

저자 임민호

19830921
limminho@hotmail.com
http://limminho.com/
http://limminho.tistory.com/

원주 삼육국민학교
원주중학교 - 광주 문화중학교
국제고등학교 (광주)
전남대학교 건축학과 - Iowa State University 신문방송학과

"광주광역시 첨단지구 임채선 내과로 오세요"

육지에 핀 한송이
유채화처럼
난 그렇게
바다의 꽃이 되리라